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2 호 11 월 20 일

평양 근로자사 1964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22 호 (260)

1964년 11월 (하)

차 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력사 교양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정신으로 무장시킴에 있어서 력사 교양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애국주의는 추상적 개념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력사, 전통, 민족적 특성, 생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직접 흘러 나오는 산 감정이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과거를 잘 알며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통과 문화와 풍습을 잘 아는 데서만이 생기는 것이다》(김 일성 선집 제 3 권, 1953년 판, 289 페지).

따라서 애국주의 교양은 원리 해석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조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주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조국에 대한 깊고 넓은 리해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조국의 력사를 잘 알려 주어야 한다.

조국과 인민이 걸어 온 력사적 행로를 잘 알 때에만 참으로 조국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며 또 거기에서만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은 오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군중 교양 체계에서 력사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 *

력사 교양은 우선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게 해 준다.

조국에 대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영광스러운 조국을 가진, 슬기로운 민족으로 된 자각에서 오는 애국적 감정이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풍모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사적 사명은 결코 민족적 긍지를 높이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사명이 민족 국가들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조건 하에서 각 민족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반드시 자기들 앞에 나선 해방적 사명을 자체의 힘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용기와 긍지가 필요한 것이다. 원래 모든 민족은 력사적으로 자체의 민족적 발전을 통하여 인류의 력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다.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으로서 외래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와 지배 계급의 온갖 압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훌륭한 애국 전통을 이룩하였으며 인류 문화의 보물고에 크게 이바지한 수 많은 과학, 예술, 문화의 재보들을 남기였다. 특히 해방 후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온갖 간난 신고를 무릅쓰고 이 땅 우에 착취 없고 압박 없는 새 사회—사회주의 사회를 창설하였으며 락후하던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다.

유구한 세월에 걸쳐 우리의 선렬들과 인민들이 이룩하여 놓은 이러한 가치 있고 귀중한 모든 것과 그것을 이룩한 인민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 이러한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대한 긍지, 그들의 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려는 열망, 이것이 없이는 이 땅 우에 인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민족적 긍지를 높이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에도 전'적으로 합치된다. 매개 나라 근로자들이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자주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나라 혁명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로 국제 혁명의 한 고리를 성과적으로 담당 수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것은 국제 혁명에 이바지하는 가장 옳은 길인 것이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남만 바라 보게 되거나 맡은 일에 자신이 없어지고 용기와 지혜가 나오지 않아 혁명 과업을 옳게 해결해 나갈 수 없다.

레닌은 혁명에서 매개 민족 프로레타리아트에게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국제주의에도 부합된다고 지적하였다:

《민족적 자랑의 감정은 우리들 대로씨야의 자각한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무관계한 것이겠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기의 국어와 자기의 조국을 사랑한다》(레닌 전집 제 21 권, 105 페지). 《대로씨야인의 민족적 자랑의 리익은 대로씨야인(과 기타 모든 민족)의 프로레타리아의 **사회주의적** 리익과 일치한다》(같은 책, 109 페지).

참으로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혁명적 풍모이며 애국적 감정인 것이다.

조국의 력사에 대한 교양은 이러한 민족적 긍지와 자랑을 배양함에 있어서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력사 교양은 우선 과거 선렬들, 인민들이 외래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수호하며 온갖 압박자들을 반대하여 얼마나 용감히 싸웠는가 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계급적 각성, 조국과 인민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 자기 조국과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투쟁 결의와 신심을 높이게 한다.

우리 인민은 반만년의 력사를 통하여 외적들의 거듭되는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주와 존엄을 지킨 슬기로운 민족이며 온갖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의 전통을 가진 인민이다. 실로 조국의 력사는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쳐들어 온 원쑤들에게 그 때마다 참패와 죽음을 주고 나라의 영예를 고수한 투쟁의 력사로, 지배 계급의 온갖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의 력사로서 찬연히 빛나고 있다. 수나라 300만의 침략군과 당나라 50만의 침략군을 맞받아 싸워 이긴 고구려 인민들의 애국 투쟁, 3 차에 걸치는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고려 인민들의 불굴의 투지, 임진 조국 전쟁 당시 왜군을 격멸한 우리 인민의 승리, 이러한 싸움에서 배출된 민족의 명장들인 을지 문덕, 강 감찬, 리 순신 장군들이 세운 위훈

과 업적 그리고 갑오 농민 전쟁을 비롯한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끊임없는 계급 투쟁, 그 중에서도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근세 우리 인민들의 투쟁들과 특히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밑에 전개된 반일 무장 투쟁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애국 지성, 용감성, 불굴의 투지, 슬기를 궁지 높이 간직하게 한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선렬들이 이룩한 이러한 업적과 고귀한 유산에 대하여 응당한 자부심을 가지며 항일 선렬들의 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당의 령도 밑에 해방 후 우리 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성과와 업적, 그것을 낳게 한 우리 당과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대하여 무한한 긍지를 가진다.

력사 교양을 통하여 애국주의와 민족적 긍지를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인민이 이루어 놓은 찬란한 과학 문화의 재보와 그것이 세계 문화사에, 세계 인민에게 이바지한 자랑찬 사실을 잘 알려 주는 것이다.

우리 조국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동의학의 창시국이며 또 천문학과 금속 활자 제조에서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진 나라이다. 예술 분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성과는 특히 찬란한 것이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3 세기 (3국 시기)에 대규모적인 관현악단이 출현하였는바 이것은 종전에 세계 최초의 관현악단의 조직으로 알려졌던 당나라의 그것에 비해서도 4~5 세기나 앞선 것이다. 7 세기 신라에서는 벌써 100여 명을 헤아리는 대합창단이 조직 운영되고 있었다. 무용도 3국 시기에 매우 발전해 있었다. 사실 당시 우리 선조들이 만든 그 정밀한 악기들의 섬세한 음과 노래, 춤의 멋들어진 가락들은 현대적 척도로 재여도 예술성의 극치들을 이루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력사 교양을 통하여 선조들이 이룩한 이와 같은 자랑찬 업적과 유산, 사적들을 잘 알려 줄 때 근로자들은 더욱더 민족적 긍지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은 근로자들에게 더 부강하고 아름다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력사 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또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슬기로운 민족적 전통을 성과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게 해 준다.

자기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라의 부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은 애국주의의 중요한 표현의 하나이다. 조국의 오늘의 발전은 과거사의 연장이며 지속이다. 과거의 력사와 전통을 제쳐 놓고 오늘을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조국의 오늘을 더욱 빛내게 하려는 애국심이 있다면 반드시 력사적 전통에 의거해야 하며 그것을 옳게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인민은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투쟁한 훌륭한 애국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훌륭한 유산들 특히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당—조선 로동당을 가질 수 있었으며 로동당의 령도 밑에 오늘의 행복한 생활과 후손 만대에 넘겨 줄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력사 교양은 대중들로 하여금 우리 인민의 애국 전통 특히는 1930 년대 김 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이룩된 혁명 전통을 깊이 파악하고 계승케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혁명을 더욱 촉진시키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

력사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또한 우리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생산과 건설에서의 귀중한 경험들을 옳게 계승할 수 있다.

우리 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농업, 목축업, 수공업, 건축 등의 분야에서 매우 높은 발전을 보고 있었다. 이 분야에서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오늘의 인민 경제 발전에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실 매개 군에 지방 공업을 창설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은 우리 인민이 력사적으로 발전시켜 오던 생산적 경험과 기술에 적지 않게 의거하였다. 노박덩굴이나 칡을 이겨서 천을 짜는 일이며 산과실들을 리용해서 훌륭한 식료 공업을 창설하는 일이며 도자기 공업, 제지 공업을 발전시키는 일 등은 모두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경험과 방법을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건축술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우리 조상들은 쇠붙이 하나 쓰지 않고도 수백 년을 견디여 낼 수 있는 목조, 석조 건물들을 지어 놓았다. 평양의 보통문이며, 서울의 남대문이며, 강계의 인풍루, 안변의 석왕사,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 안악의 3 호 고분 등을 비롯한 수 많은 건축 유산들은 오늘에 있어서도 건축술의 발전에 있어서 귀중한 본보기로 된다.

김 일성 동지는 건축 사업은 특히 나라의 백년 대계에 관계되는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값싸고 보기 좋고 인민들에게 편리하게 되도록 배려하는 데서 애국주의를 발현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우리는 조상들이 이룩한 고귀한 건축술을 계속 연구함으로써 수상 동지의 교시 대로 오늘의 건설물도 더 질 좋고 값싸고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 낼 수 있다.

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우리는 과거에 이룩한 유산들을 널리 소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오늘의 민족 문화 건설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어야 한다.

세계의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 불후의 공헌을 남긴 김 봉한 교수의 경락 실태의 발견도 다름 아닌 전통의 연구로부터 출발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일찌기 인간과 가축의 생체에 경락 계통이 존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에 기초한 치료 체계를 확립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조상들은 먼 옛날부터 벌써 서양 의학이 치료할 수 없었던 일련의 병들을 수다히 치료하고 있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창조한 동의학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발견된 경락 실태의 계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과거의 치료 예방 경험들의 섭취에 더욱더 노력한다면 보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것을 의심할 바 없다.

예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거두고 있는 높은 경지의 성과도 바로 전통을 옳게 계승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오늘 근로자들 속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고 그들을 애국적 헌신성에로 부르고 있는 노래와 춤들의 대부분은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민요와 민간 무용의 계승 발전으로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 《황금의 예술》, 《세계 최고봉의 예술》로서 사람들의 인기를 집중시키며 투쟁에로 부르는 예술 종목들의 거의 모두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예술 형식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발전시킨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문화 예술의 계속 높은 발전을 위해서도 사람들 속에서 과거의 전통에 대한 계승에 더욱 더 관심하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력사 교양은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게 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애국자로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적 립장에 서서 자기 나라의 발전과 자기 나라 혁명 발전에 대하여 책임적이고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맑스-레닌주의와 선진 경험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나라의 부흥 발전에 최대한으로 이바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를 세우려면 자기 나라의 력사를 알아야 하며 우수한 전통을 알아야 한다.

력사를 잘 알아야 우리 인민들의 힘을 더욱 굳게 믿고 우리 인민의 힘으로 우리 혁명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주견을 가지게 되며 굳건한 책임적 립장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력사는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조국이 처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민만은 변함 없이 애국적 립장을 지켜 싸웠고 조국의 영예를 고수한 결정적 동력이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대주의적인 지배층을 반대하고 나라를 지켜 싸운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은 력사의 수다한 사변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력사적 사실은 인민의 힘에 의거한다면 반드시 나라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우리 혁명을 성과 있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 준다.

또한 주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우리 나라의 현실, 우리 나라의 특성에 맞게 창조적이고 독창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 나라의 현실과 특성을 옳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문제로 된다. 력사 교양은 이 문제를 풀어 주는 중요한 공간이다.

우리 나라의 실정, 우리 나라의 특성을 잘 알려면 반드시 우리 나라의 발전을 력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실정, 우리 나라의 특성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구한 력사적 행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력사를 잘 모르고서는 오늘의 우리 나라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근로자들 속에서 력사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우리 나라의 특성을 옳게 깨닫고 그에 맞게 일할 때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더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력사 교양은 근로자들 속에서 애국주의 정신을 높이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 잘 하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 ＊

력사 교양은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자로 교양하는 무기로 되여야 한다.

1962년 5월 3일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근로자들 속에서의 력사 교양 강화의 중요한 지침으로 된다.

력사 교양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나라 력사 과학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로 끌어 올리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력사가들이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방법론에 립각하여 우리 나라의 사료들을 분석하고 그를 체계화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 력사를 란폭하게 외곡 날조한 일제 어용 학자들, 반동적 부르죠아 사가들이 남겨 놓은 후과와 여독을 시급히 퇴치하여 우리 나라 력사 과학을 진정한 인민의 력사로 더욱 완성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현시기 광범한 대중들 속에 우리 나라 력사를 널리 보급 선전하는 사업이 중요한 당적 요구로 제기되고 있는 것 만큼 우선 지도 일'군들 자신이 력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식을 높이는 것이 선차적 문제로 된다. 일'군들이 조선 력사를 깊이 학습하고 체득할 때만이 대중 속에서도 그를 널리 선전할 수 있고 또한 사업에서도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들의 구미를 옳게 고려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력사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됨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 력사 교원들의 임무가 특히 무거워졌다. 력사 교원들은 응당히 이 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 속에서 뿐만 아니라 광범한 군중 속에서도 교양자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있어서 교원들은 력사에 대한 깊은 지식을 주는 동시에 반드시 력사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기초우에서 사람들을 열렬한 애국자로, 혁명가로 교양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력사 교원들 자신이 력사에 대한 지식을 더욱 풍부히 하는 동시에 그것을 높은 긍지와 흥분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토에 대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력사를 감화 교양의 방법으로 설득력 있게 알려 줄 수 있다.

조국의 력사를 소개하며, 력사 지식을 보급함에 있어서 작가, 예술인들에게 돌려지는 사회적 기대가 매우 크다.

·력사 지식에 대한 자료는 다른 선전 수단과 함께 작가, 예술인들의 창조 활동을 통하여 대중에게 널리 전달된다. 때문에 작가, 예술인들 자신이 조국의

력사를 더 깊이 연구하고 교양적 가치가 풍부한 력사적 소재들을 주제로 선택하여 소설, 희곡, 씨나리오 등을 더 많이 창작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과거 선조들이 남긴 고전 작품들을 발굴하여 널리 소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력사 지식을 보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출판물이다. 출판물에서 력사물을 널리 소개하는 동시에 그것이 대중 속에서 더 큰 실효를 나타내도록 쉽고도 흥미 있게 취급해야 하며 또한 력사적 사실들을 소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리론적 분석을 주는 글들도 많이 실어 대중의 세계관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들 속에서 조국의 유구한 력사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럽고 슬기로운 력사를 전달함에 있어서 선조들이 남긴 유적 유물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

오늘 우리 나라에 남아 있는 유적 유물에는 애국적 인민들의 기상과 기백이 깃들어 있으며 재능 있는 우리 인민들의 솜씨들과 슬기로운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다. 이것은 모두가 귀중한 국보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유적 유물들을 우리 세대들의 교양 자료로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후대들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명산대천과 지방의 가는 곳마다에 수 많이 있는 유적과 유물들을 소중히 보관 관리하고 애호하며 원쑤들에 의해 파손되였거나 낡은 것은 복구 정비하는 사업을 전 인민적 사업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력사 교양을 옳게 진행한다면 이것은 응당히 자발적인 군중적 운동으로 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유적 유물 발굴에 계속 관심하고 노력한다면 파묻혀 있는 귀중한 국보들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력사 교양을 잘 하려면 그것에 대한 보급 사업을 다양하게 조직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직장들과 일터에서 계획적으로 현지 답사, 명승지 견학, 감상 모임, 좌담회 등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 하여 모든 근로자들 속에서 력사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조국에 대한 더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해야 하며 과거 선조들의 투쟁을 더듬어 보고 오늘의 행복을 귀중히 여기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매 지방에서 우선 자기 지방에 대한 향토사와 그 곳에 있는 유물, 유적, 투쟁 사적들을 잘 알게 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당은 우리들에게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 산천에서 살면서 사회주의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향 마을에는 조상들이 남긴 유적 유물이 있고 아름다운 전설들이 깃들어 있다. 이것을 알아야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나오며 그 곳에서 안착하여 고향 마을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다 바쳐 일할 수 있다.

자기 향토의 자랑스러운 것을 이어 자기 마을을 잘 꾸리는 것은 곧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것으로 된다. 우리는 그 곳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상 락원을 건설해야 한다.

력사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옳게 관철한다면 우리는 근로자들 속에서 애국주의 정신을 한층 높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10대 과업 관철에서의 청년들의 임무

홍 순 권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9 차 전원 회의에서 제기된 10대 과업은 앞으로 2 년 간에 우리가 점령하여야 할 중심적인 전투 목표로서 그것을 점령하는 것은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오늘 사로청 단체들과 청년들에게는 10대 과업 수행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영예롭고 어려운 임무가 나서고 있다.

10대 과업 관철에서 청년들이 돌격대가 되는 것—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당과 조국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현시기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청년들의 당면 임무의 하나는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서 경제 건설에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조국이 부르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반드시 앞장 서 나아가야 한다.

또한 10대 과업 자체가 어려운 과업으로서 사람들의 전투적 기백을 요구한다. 따라서 불요불굴의 투지와 혁명적 기백이 강한 우리 청년들이 이 영예로운 투쟁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조직들과 청년들은 10대 과업 관철에서 앞장 설 수 있는 실제적 력량으로 준비되고 있다.

당의 옳은 령도 하에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조직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조선 청년들의 위력한 전투적 조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전 동맹에 당'적 사상 체계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백절 불굴의 투지, 용감성 그리고 높은 혁명성을 체현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조선 청년들이 과거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 밑에서 가혹한 민족적, 계급적 압박을 받으면서 일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행정에서 그리고 해방 후 미제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영웅적 투쟁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며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 행정에서 체현된 것이다. 그리 하여 당이 제기하는 위대한 사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언제나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중요한 고리를 담당해 나서며 언제나 용감하고 대담하게 앞을 헤치고 나가는 것은 우리 나라 청년들의 자랑으로, 전통으로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항상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어려운 일의 돌파구를 담당하였으며 영웅적 기개를 남김 없이 시위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받들고 극히 짧은 기간에 수많은 남녀 청년들이 농촌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평양—신의주 간 전기 철도 공사 때에는 전국 각지 청년들이 당의 부름에 열렬히 호응하여 서로 앞을 다투어 건설장으로 달려 나갔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진리를 탐구하려는 의욕이 높고 새것에 민감하며 보수주의, 소극성과는 비타협적이며 새로운 과학 기술 지식을 습득하며 그것을 사업과 생산 실천에 적극 도입하려는 비상한 열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당의 옳은 교육 정책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중등 이상의 일반 지식과 기본적인 생산 기술 지식을 체득하고 있다. 우리의 많은 청년들은 전문,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적인 과학 기술로 무장되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그들이 소유한 이러한 훌륭한 자질로 하여 나라의 기술적 진보와 기술 혁명 과업 수행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놀고 있다. 청년들은 기술 발명과 창의 고안, 합리화 운동의 선두에 서 있으며 그의 적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공업 부문에서만 하여도 4만여 건,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3만 7,000여 건의 각종 발명 및 합리화안이 청년들에 의하여 도입되였다는 사실이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 청년들의 귀중한 정신적 특질은 또한 원대한 전망과 높은 리상이 있는 것이며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악하고 완강한 것이다.

아름다운 꿈과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달라붙는 것은 혁명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투쟁 의욕, 높은 리상과 포부는 그들에게 자기 생애의 뚜렷한 투쟁 목표와 투쟁 신심을 주며 난관 극복의 정신과 혁명가적 기질을 발휘하게 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산이라도 허물듯한 높은 기세를 가지게 하며 혁명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생활을 명랑하고 락천적으로 꾸려 나가려는 기백을 준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한 해방 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창조적 로력 투쟁에서 체득한 귀중한 경험들이 있다.

청년들은 우리 혁명 발전의 매 단계마다 언제나 새 조국 건설의 역군으로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년들은 전쟁 전 인민 경제 부흥 발전 시기 비상한 열성을 발휘하였다. 57만여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철산 광산, 신천 탄광 개발 공사에 달려가 위훈을 세웠으며 수 많은 청년들이 보통강 개수 공사, 단천항 축항 공사, 룡림 철도 부설 공사에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고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에서 《청년 작업반》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 애국적 증산 경쟁의 앞장에 섰다.

우리 당과 인민이 한 덩어리가 되여 맨주먹만 가지고 전쟁의 상처를 가시던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도, 내외의 원쑤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고 제 1 차 5 개년 계획을 2 년 반 동안에 완수하던 때에도 그리고 7 개년 계획의 전반기 과업을 수행하던 시기에 있어서도 청년들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담당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이악하게 관철하고 있다. 수천

수만의 남녀 청년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평남 북부 탄전과 강계 청년 발전소를 비롯한 탄광, 발전소 건설장에 진출하여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청년들은 해주—하성 간의 200리 광궤 철도를 단 75 일 간에 건설했으며 대규모의 현대적 비날론 공장을 단 9 개월 간에 일떠세웠으며 그리고 수십만 정보의 땅에 관개 체계를 도입하는 대자연 개조 투쟁과 민주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대도시 건설에서 《천리마 속도》, 《비날론 속도》를 창조하였다.

오늘도 청년들은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과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양하고 있다.

민청 제 5 차 대회가 있은 후에만도 7,500여 명의 청년들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강철, 비료, 세멘트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사와 중요 철도 시설 공사장에 진출하여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 있다. 오늘 공업 부문의 중요한 단위들에서는 2,600 개에 달하는 청년 돌격대들이 활동하고 있다.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강계 청년 발전소의 건설, 평양—신의주 간의 철도 전기화, 평양 화력 발전소 및 김 일성 종합 대학의 건설 등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세우는 건설장에서 새로운 《천리마 속도》를 창조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리 하여 우리 청년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실로 커다란 로력적 업적들을 쌓아 올렸다.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영웅적 투쟁을 쌓을 수 있는 우수한 자질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주력군으로 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청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훌륭한 자질로 하여 사회 혁명과 새 사회의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전투적 기백을 발휘하여 10대 과업 관철에서 또다시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여 불멸의 위훈을 떨쳐야 할 것이다.

* *

청년들이 10대 과업 관철에서 앞장 서려면 우리의 전투적 위력을 발휘하여 계속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뚫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0대 과업에서 어렵고 중심적인 전투 목표들은 석탄 및 광물, 강철, 비료, 전력, 알곡 고지들이다. 이 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워야만 10대 과업 수행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전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7 개년 계획의 후반기 과업을 성과적으로 끝낼 수 있다.

청년들은 이 부문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선 채취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청년들이 앞장 서야 한다.

채취 공업은 공업의 첫 공정으로서 이것을 선행시키지 않고서는 인민 경제 다른 부문의 높은 발전 속도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방력도 강화할 수 없다.

탄광, 광산 부문에서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 고리는 갱 건설과 굴진을 생산에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부문에 청년들이 더 많이 진출하도록 하며 특히 고속도 굴진 대렬

에 청년들이 적극 참가하며 선진적인 채탄, 채광 방법을 적극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광,광산 개발 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또한 중요한 것은 지질 탐사 사업을 갱 건설과 굴진에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는 것이다.

지질 탐사 사업에는 특히 불요불굴성과 완강한 투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청년들이 지질 탐사 사업에 적극 진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서 창조적 지혜와 혁명적 투지를 발휘하여야 한다.

금속 부문의 청년들은 선진 용해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전기로, 평로의 용해 시간을 단축하고 로저 면적 당 생산량을 높이며 파고철을 회수 리용하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 서야 한다. 그리고 강재를 규격 별, 품종 별로 생산 보장하며 강재의 품종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화학 공업 부문의 청년들은 화학 비료와 살초제, 살충제 그리고 화학 섬유의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동시에 청년들은 본궁, 순천, 청수, 아오지 등 화학 공장 확장 건설 공사에 적극 진출해야 하며 건설 속도와 건설의 질을 보장하는 데서 혁명적 정열을 발휘하여야 한다.

전력 생산 부문 청년들은 전력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중소 규모 발전소 건설을 병행하여 진행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헌신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 부문 청년들은 운봉 발전소, 평양 화력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서 로력적 위훈을 세우는 동시에 소형 발전소 건설을 위한 군중적 투쟁에서 앞장 서야 한다.

농촌 청년들은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영광스러운 담당자들이다.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받들고 기술, 문화,사상 혁명의 앞장에 서서 향토 건설과 문화적이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사회주의 농촌의 건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알곡 생산을 높이는 데서 청년들이 창조적 지혜를 보여 주어야 한다. 단위 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논면적을 넓히고 새 땅을 얻어 내여 산'골에까지 튼튼한 알곡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개간 사업에서 청년들이 본보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축산업 발전을 위한 사료 기지 조성, 역축 관리, 양어,유지림 및 갈밭 조성과 과수업 발전,산'짐승 잡이 등 긴절한 부문들에서 청년들이 앞장 서야 한다.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 있게 끝 내는 것이 10대 과업 관철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지금 청년들 속에서 한창 고조되고 있는 《100 날 전투》를 강력히 추진시킴으로써 생산 계획을 일별, 주별로 어김 없이 끝 맺고 모든 청년들이 년간 계획을 원만히 결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10대 과업 관철에서 앞장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 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 10대 과업의 성과적 수행의 기본 고리는 기술 혁신에 달려 있다. 광범한 청년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을 동원하여 과학과 경험을 옳게 배합하고 로동자와 기술자들의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청년들이 도처에서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하여 대중적 혁신 운동의 불'길

을 더욱 높여야 한다. 동시에 청년들 속에서 과학 기술의 령마루에 오르기 위한 행군을 대대적으로 조직 전개함으로써 모두가 높은 과학 지식을 소유하고 한 가지 이상의 전문 기술을 가지며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 맡은 사업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청년들은 기수, 기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농촌 청년들은 다 뜨락또르를 운전할 능력을 소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대 과업 관철에서 또한 청년들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공업 생산품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은 10대 과업 관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아무리 많은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질이 낮다면 나라의 생산력 발전과 인민들의 일상 생활 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청년들은 당의 의도 대로 모든 제품의 질을 1~2 년 내에 선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조건과 가능성, 예비, 지혜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경공업, 기계 제작 공업 및 기본 건설 부문을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확립하며 생산 문화를 높이며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청년들이 더욱 힘차게 나서야 한다.

청년들은 또한 절약 투쟁에서도 모범이 되여야 한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며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는 것은 있는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나라의 경제력을 빨리 향상시키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청년들 속에서 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원 단위 소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것을 계통적으로 낮추며 기계 설비를 애호하고 그의 리용률을 높이며 나라의 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있는 것은 아껴 쓰고 없는 것은 찾아 내면서 더 많이 생산하도록 군중적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전체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파고철, 파지, 파유리를 비롯한 폐기, 폐잔물을 회수하기 위한 광범한 사회적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그람의 철이나 석탄이라도 더 절약하고 저축하며 한 알의 낟알과 한 줌의 비료라도 더 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이 제시한 10대 과업 관철에서 청년들이 앞장 서기 위해서는 각급 사로청 조직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는 것이다. 오직 사람과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만 청년들의 정치적 열성을 부단히 높일 수 있으며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10대 과업 관철에 효과적으로 조직 동원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로청 조직들은 청년들 속에 깊이 들어 가서 정치 사업을 앞세워 모든 사로청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전투를 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급 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며 군중 문화 예술 활동과 군중 체육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일'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렇게 될 때만이 청년으로서의 모든 자질을 전면적으로 발양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각급 사로청 조직들의 활동에서 형식주의, 관료주의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마스고 사업 작풍과 방법을 개선하며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항구적인 사업과 깜빠니야 사업을 옳게 결합하며 일반적 지도와 심화의 방법을 옳게 배합함으로써 우가 아래를 실'속 있게 도와 주며 한 점을 뚫고 경험을 창조하여 그것을 일반화하며 당 정책을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대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사로청 일'군들의 사업 수준에 크게 달려 있다. 사로청 일'군들이 우선 혁명적 학풍을 세워 꾸준히 배움으로써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맑스-레닌주의를 깊이 소유하며 일반 지식 수준, 문화 수준 등 전반적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도 일'군들이 특히 당성 단련과 혁명적 수양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당'적 사상 체계를 더욱 굳건히 세우며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 전사로 되여야 한다.

또한 일'군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적 질서와 제도를 철저히 세우고 그것을 준수하며 안일성, 해이성을 배격하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일'군들 자신이 모든 부문의 사업과 생활에서 청년 군중의 모범이 되고 기수가 되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10대 과업 관철의 돌격대로 성과 있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

10대 과업의 관철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천리마 대고조를 계속 견지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오늘 전 당과 전체 인민이 10대 과업을 받들고 7 개년 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돌격전에 들어 섰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각급 조직들과 청년들은 전체 인민의 천리마 대진군 속에서 로동당 시대의 청년으로서의 전투적 위력을 다시 한번 떨치자.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을 더욱 높이자

김 길 현

오늘 우리 나라의 혁명 발전은 객관적 현실에 상응하게 당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강화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 발전되고 혁명 정세가 우리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됨에 따라 각급 당 조직들 앞에는 어렵고도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중중첩첩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 앞에 제기된 어렵고 방대한 임무를 성과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의 령도적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혁명에 대한 당'적 령도는 각급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건설의 매개 부문, 매개 단위의 최고 지도 기관인 당 위원회의 지도적 기능을 높이는 문제는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 결정적 담보로 된다.

당 조직들이 자기의 지도적 기능을 부단히 높이며 그것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만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각계 각층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고 당원들과 근로 대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옳게 조직 발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항상 각급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 대렬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 한편 당 위원회를 우수한 당 핵심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켰으며, 위원들의 역할을 높이고 집체적 령도를 강화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결과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이 일층 제고되였으며 당 중앙 위원회의 의도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거침 없이 침투 관철되게 되였으며 상하가 일치 단결되고 기맥이 서로 상통되여 전 당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게 되였으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혁명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날로 변화 발전하는 우리의 현실은 당의 령도적 기능을 더욱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

당의 령도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지금까지 우리 당이 취해 온 일련의 조직적 대책을 계속 관철하여야 하며 특히 각급 당 조직들이 당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 문제가 중요하다.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을 부단히 제고하는 문제는 당 사업을 정상화하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여 있다.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은 당 사업의 정상화에서 표현되며 당 사업의 정상화는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을 높이는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당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 위원회가 사업의 전반을 장악하고 정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며 제기된 혁명 과업을 과학적이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철저히 의거하여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습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당 위원회들이 자기의 본신 사업을 놓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끌고 나갈 때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을 높일 수 있으며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 사업의 정상화는 당 조직들의 당'적 기능을 제고하며 당 사업을 보다 심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본질적이며 항구적인 요구로 된다.

모든 당 조직들이 우리 당이 이미 강조해 온 당 사업의 정상화가 가지는 본질적 의의와 요구를 명백히 인식하고 그를 계속 관철하는 것은 당 사업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 사업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기본 요구의 하나는 우선 매개 당 조직들이 당 사업 즉 사람과의 사업을 틀어 쥐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당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당 조직들이 깜빠니야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자기의 본신 사업인 정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 사업의 정상화—이것은 당 사업이 끊임 없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여야 한다는 시간적 계속성과 함께 항상 기본 문제, 본신 사업을 놓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모든 당 조직들이 다 자기의 사업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업 대상과 기본 임무에 철저히 립각하여 그것을 일상적으로 끌고 갈 때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은 더욱 제고될 수 있으며 제기된 모든 과업이 빠짐 없이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당 조직들이 당 내부 사업을 옳게 틀어 쥐고 그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당 내부 사업이 강화되여야 혁명의 지휘 성원들인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을 정치 사상 리론적으로 확고히 무장시킬 수 있으며 전체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고 그들의 선봉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 조직들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이 제고될 때 혁명 전선의 매개 초소에서 각계 각층 군중들이 한결같이 발동될 수 있으며 제기된 혁명 과업이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당 조직들이 잘 움직이고 당원들이 발동되면 당 사업이 잘 되는 것이며 당 사업이 잘 되면 모든 문제들이 다 잘 되여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사업이 정상화되고 못 되는 것은 당 내부 사업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당 조직들이 당 사업의 기본인 당 내부 사업을 하지 않고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사업에 매달리게 되면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의 사업을 정상화할 수 없다.

당 사업 정상화의 기본 요구는 또한 당이 모든 사업의 전반을 장악하는 것이다.

당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당 내부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 전반을 튼튼히 장악하여야 한다.

사업을 전반적으로 장악함으로써만 지도에서 일면성을 극복하고 모든 부문과 단위의 사업을 빠짐 없이 통일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으며 따라서 당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우리 당은 어느 한 측면이나 부문만을 지도할 수 없으며 응당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에 대하여 관심하며 그를 지도하여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전반 장악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당 내부 사업 전반을 틀어 쥐고 끌고 나가는 것이다. 당 내부 사업은 호상 유기적으로 련관되여 있으며 통일되여 있다.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 등 어느 한 고리도 빠짐 없이 전반을 장악하고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끌고 나갈 때 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으며 당의 령도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행정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당 조직들이 행정 경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일상적으로 지도하여야 각 부문에서 제기되는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할 수 있으며 인민 경제 전반에 걸쳐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례외 없이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자면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공업, 농업, 건설, 운수, 교육, 문화, 보건 등을, 공업에 있어서도 중공업과 경공업, 중공업에 있어서도 금속, 기계, 화학, 채굴 공업 등 모든 부문을 빠짐 없이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공업을 강조하면 농업을 소홀히 하거나 경제 문화를 강조하면 군사에 관심을 적게 돌리는 것과 같은 현상들은 다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이 자기 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하지 못 하는 데 기인된다.

전반 장악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당 내부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문제이다.

당 위원회들이 당 내부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만 전반을 장악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당 정치 사업과 경제 사업은 우리의 혁명 사업에서 두 개의 측면인 동시에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이며 그 긴밀한 결합은 우리 당 령도의 중요한 특성이며 기본 사업 방법이다.

당 내부 사업을 잘 하지 않고서는 당을 강화할 수 없으며 당을 강화함이 없이는 혁명 과업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당 내부 사업에서의 성과는 곧 행정 경제 사업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행정 경제 사업과 동떨어진 당 조직 정치 사업이란 있을 수 없다.

행정 경제 사업을 포치한 다음에는 당 내부 사업을 따라 세우며 그것이 끝나면 다시 행정 경제 사업을 포치하는 등 부단한 반복 과정을 통해서 당은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

로 관철할 수 있다.

당 내부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 간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당 내부 사업을 료해 장악할 뿐만 아니라 당 내부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등 전반을 장악할 때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사업을 능동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전반을 장악함으로써만 당 조직들은 키잡이를 잘 하여 어느 한 부문도 빠짐없이 통일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으며 사업에서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 고리를 포착하여 그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전투에서 지휘 성원들이 언제나 모든 전선을 지휘하면서 동시에 주타격 방향을 제때에 면바로 포착하여 그 곳에 화력을 집중함으로써 전 전선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과 같다.

당 조직들이 행정 경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장악하고 당 내부 사업과 행정 경제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통일적인 지도를 원만히 보장하려면 반드시 실정을 정상적으로 료해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정을 료해하여야 전반적 전선에서 어느 고리가 잘 되고 어떤 고리가 약하며 어떤 고리에 력량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정확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옳게 포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반을 장악하기 위하여서는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사업, 행정 경제 사업 등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을 장악하는 것은 결코 한두 사람의 소총명으로써는 불가능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혜가 발휘되여야 전반을 장악할 수 있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가 보장될 때 해당 단위의 그 어떤 사업도 빠짐없이 장악하고 제때에 방향과 그 수행 방도를 가르쳐 줄 수 있으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옳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항구적인 사업과 당면하게 제기된 과업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력량을 옳게 포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는 행정에는 항구적인 사업과 시기적으로 긴급한 사업이 허다하게 제기된다.

항구적인 사업과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제기된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들을 능숙히 해결하는 것은 오직 각급 당 조직들과 일'군들의 일하는 솜씨 여하에 달려 있다.

만일 이 량자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그의 수행을 위해서 력량을 옳게 포치할 때에는 사업에서 일면성을 극복하고 정상화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 할 때에는 파동성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래 전망적인 사업을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갈 때 시기적으로 바쁜 일이 제기되여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동시에 시기적으로 제기되는 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전망적인 사업을 앞당기며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계기로 된다. 례하면 회의나 강습을 조직하는 것은 다 깜빠니야에 속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한 계단 추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하여야 할 사업이며 따라서 본래의 사업을 더 잘 하는 방향에서 조직되여야 하며 회의나 강습의 실질적인 효과는 그 후에 본래의 사업이 더 잘 되는 것으로써 표시되여야 한다. 당 정책 집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당 정책이 나오면 그를 정확히 집행하면서 이미 집행해 오던 당 정책도 동시에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이미 제기된 당 정책을 계속 꾸준히 집행하면서 새로 제기된 당 정책을 이와 결부시켜 집행할 때 모두가 다 효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급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항상 문제를 서로 련관시켜 통일적으로 고찰하고 심중히 연구하여 명확한 대책을 세움으로써 같은 노력을 들이고도 모든 사업에서 더 많은 성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다.

당 사업을 정상화하고 당 조직들의 기능을 제고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 사업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이다.

당 사업 체계가 확립되였다는 것은 **각급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자기의 기본 임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를 철저히 수행할 줄 알며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가 째이고 규률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자기의 기본 임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당 조직들에서는 그의 위치와 기본 임무에 상응하게 직제와 직능이 규정되여 있다. 따라서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자기 앞에 부과된 기본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기 자기의 직제에 따라 규정된 직능과 내부 사업 준칙을 정확히 준수하는 것은 사업 체계를 확립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직능과 내부 사업 준칙은 당 조직들과 그 일'군들로 하여금 본신 임무로부터 리탈함이 없이 목적 지향성 있게 정상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하며 능동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사업할 수 있게 한다. 문제는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작성된 직능과 준칙에 따라 자기의 본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정확한 직능과 내부 사업 준칙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사업 체계를 확립하고 당 사업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당 위원회들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당 사업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고리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선후차를 가리고 중심 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어느 한 고리도 빠짐없이 모든 부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사업에서 파동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사업을 정상화하자면 당 조직들이 전망 계획과 현행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 조직들이 시기별로 진행할 사업 방향과 내용이 명확히 반영된 년간 계획과 그것을 구체화하여 당면한 투쟁 목표를 뚜렷이 밝혀 놓은 분

거, 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년간은 물론 월 주간에 할 모든 사업을 잊지 않고 주동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 특히 당 위원회들에서는 년간 전망 계획과 분기, 월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하며 매개 일'군들은 일별로 된 주간 행동 계획을 가지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는 것을 제도화하며 습성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로 맞물려 돌아 감으로써만 모든 사업이 정상화되고 빈틈 없이 조직 전개될 수 있으며 사업에서의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만일 일'군들이 면밀한 계획이 없이 일할 때에는 목적 지향성 있게 주동적으로 일하지 못 하게 되며 따라서 더 많은 일을 하지 못 하게 된다. 계획은 매개 부문 간, 단위와 고리들 간, 그리고 일'군들 호상간에 서로 맞물리도록 과학적이며 구체적으로 작성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 사업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총화 사업을 제때에 정확히 짓는 문제이다.

당이 일단 포치한 사업을 시기 적절하게 수습 총화하는 것은 이미 얻은 성과를 공고히 하며 축적된 경험을 일반화하며 앞으로의 사업을 더욱 계획적이며 정상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자체의 력량을 옳게 수습할 수 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각급 당 조직들과 일'군들이 자기의 사업을 일별, 주별, 월별, 분기 별, 년간 별로 총화하며 청산리 교시와 대안 교시, 강서군 교시 집행에 대한 총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당 조직들이 당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문 기관 일'군들로부터 사업을 어떻게 조직했으며 그의 진행 정형은 어떠하며 이미 얻은 경험과 당면하게 걸린 문제는 무엇인가를 일상적으로 보고 받거나 실지 현장에 내려 가서 그들과 담화를 통하여 사업의 진행 정형을 료해 분석하여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당이 이미 포치한 사업들을 제기된 방향에 의거하여 정확히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총화를 진행함으로써만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이 항상 당의 령도 하에 당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기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할 수 있다.

각급 당 조직들이 바로 이와 같이 행정 경제 기관들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집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지도 검열하고 총화함으로써 정상적인 당 사업을 통하여 경제 과업을 푸는 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

당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당 사업 체계를 확립하며 계획적으로 사업하며 총화하여 모든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은 바로 일'군들의 능력과 수준에 달려 있다.

부단히 변천하는 환경과 새롭게 제기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 과업들을 옳게 분석하고 처리하며 우리의 전진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일'군들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일'군들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투에서 지휘 성원이 정황을 판단하고 결심과 명령을 신속 정확히 하달하듯이 전반을 료해 장악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업에서 정상화를 보장할 수 있다.

일'군들의 식견과 안목을 넓히며 수완을 배양하는 강력한 수단은 당 정책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일'군들이 비록 주관적으로는 당에 충실하려고 속다짐하였다 하더라도 실지로 당 정책과 수상 동지의 교시를 잘 모르며 당 사업 실무에 밝지 못 하고 또한 하부 실정에 어둡게 되면 그들은 불피코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범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당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군들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들이 당 정책의 본질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원칙에서 현실 문제를 옳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정에 적응하게 사업할 줄 알며 당원들과 군중 속에서 사람들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진행하며 그들을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에로 조직 동원할 줄 아는 세련된 당 일'군으로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군들이 복잡 다단하고 부단히 변천하는 정황 속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중요한 것과 차요적인 것을 갈라 내며 과학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당 조직들과 일'군들의 기능을 일층 제고할 수 있게 하며 당 사업을 정상화함에 있어서 가장 선결적인 문제로 나선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 일'군들이 우리 당 정책과 군중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필요한 기술 경제 지식을 소유하며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 방법을 체득함으로써만 당 사업을 정상화할 데 대한 당'적 요구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를 철저히 구현할 수 있다.

각급 당 조직들이 이상과 같은 제반 대책을 정확히 관철할 때 의심할 바 없이 당 사업은 정상화될 것이며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림산 공업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위하여

김 동 훈

림산 공업은 나라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림산 자원을 조성, 채취 및 가공하는 공업의 중요한 한 구성 부문이다. 그것은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각종 생산 수단과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생산 공급한다.

림산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은 인민 경제의 확대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합법칙적 요구이다.

채굴 공업, 선박 건조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등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기본 건설과 관개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확대 재생산의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인민 생활의 향상에 필요한 각종 목재 용품과 섬유 및 종이 등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도 목재를 대량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는 인민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며 인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목재의 용도는 확대되며 그것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다.

림산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목재에 대한 장성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라의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부단히 공고화함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림산 공업의 발전은 또한 산간 벽지에서 생활하는 농민들의 사상 의식 및 문화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림산 공업은 자체의 특수성으로 하여 산간 오지대를 따라 분포되면서 산간 벽지의 농촌들과 직접 접하게 된다. 림산 마을들은 로동자 지구를 형성하여 농촌 마을에 린접하거나 또는 직접 농민들의 주택 지대에 함께 위치하게 됨으로써 농민들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 림산 공업은 또한 자체의 강력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에 의거하여 린접한 협동 농장들의 농업 생산을 지원한다.

이리 하여 림산 공업의 발전은 농업 생산의 장성과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촉진하며 로농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한다.

그 뿐 아니라 림산 공업은 농한기를 리용하여 농민들을 목재 생산에 인입함으로써 생산 활동과 생활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로동 계급의 수준에 끌어 올리게 하며 특히는 그들에게 공업적 기업 관리 운영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한다.

림산 공업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노는 이와 같은 중요한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는 해방 후 첫 시기부터 림산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우리 당은 산림 면적이 국토의 77%에 달하면서도 채벌해 쓸 나무가 그리 많지 않은 조건을 고려하여 한편으로는 채벌한 나무의 실수률을 높이고 그 부산물까지도 종합적으로 리용케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의 산림 축적을 채벌에 선행하여 증대시키도록 하는 원칙에서 당면한 목재의 생산 및 리용과 산림의 전망 축적 간에 정확한 균형을 조성하면서 림산 공업을 발전시켜 왔다.

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은 적들의 파괴로부터 산림 자원을 구출하고 그것을 더 풍부히 조성하기 위하여 식수 조림 사업을 계속 추진시켜 왔으며 각 시, 군에 산림 경영소를 설치하고 수천 명의 보호원을 배치하여 국가적인 산림 보호 대책을 강구하였다.

전후에 와서 당은 미제에 의하여 파괴된 림산 공업을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림 자원 조사 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직 진행하고 산림 조성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당은 지방 공업을 창설하며 기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활 필수품 직장을 꾸리게 하는 등 림산 공업의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대책도 강구하였다.

당은 또한 이 부문에 대한 당'적 령도를 강화하며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데 심중한 주의를 돌렸다.

지금 우리 나라 림산 공업 부문의 매개 단위들에서는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가 도입 일반화됨으로써 웃사람, 웃기관이 아래'사람, 아래 기관을 도와 주는 기풍이 확립되여 가고 있으며 생산에서 큰 성과가 달성되고 있다. 특히 생산 조직의 기층 단위인 림산 작업소를 거점으로 하는 정치 사업

의 강화는 당'적 령도를 더욱 강화하고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당은 림산 공업 부문에 대한 당'적 령도를 강화하고 사업 방법,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선진적인 채벌 방법을 도입하며 목재 생산에 새로운 기계 기술 수단들을 대량적으로 도입할 방침도 제시하였다.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서는 림산 기업소들에서 순환식 채벌 방법에 의한 생산의 집중화를 실현하며 림산 공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자연력을 목재 생산에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고 목재의 원가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림업 로동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당이 제시한 순환식 채벌 방법에 의한 생산의 집중화는 목재 생산 장성의 중요한 요인이였으며 운재 공정에서의 강하천의 리용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원가 저하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또한 최근 년간 림산 공업 부문에는 기계톱, 뜨락또르, 자동차 등 현대적인 기술 수단들이 현저히 증가되였다. 림산 공업에서 힘든 작업들은 급속히 기계화되여 가고 있다.

당은 림산 로동이 산간 벽지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로동자들의 생활을 고착시키며 그들의 문화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관심을 돌렸다.

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하에 우리 나라 림산 공업에서는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전후 짧은 기간 내에 우리 나라의 많

은 무림 목지에는 수십억 본의 나무가 심어졌고 황폐화되였던 산림은 오늘 급속히 록화되여 가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는 전쟁 전에 비하여 근 7 배에 달하는 목재를 공급하면서도 산림 축적을 근 3 배로 증가시켜 앞으로 목재에 대한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목재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목재에 대한 장성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서 보다 새로운 혁신을 이룩해야 한다.

* *

현시기 림산 공업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김 일성 동지가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림산 공업을 공장화하는 문제이다.

림산 공업의 공장화는 이 부문에서 생산의 분산성을 극복하고 산림을 계획적으로 조성, 채벌함으로써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며 림산 로동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 결정적 방도이다.

림산 공업에서의 생산의 분산성은 로동자들의 생활을 안착할 수 없게 하며 생산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림산 공업의 이러한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림 지역의 일정한 중심 지점에 생활과 로동의 기본 터전을 꾸리고 림목지들을 확대되는 규모에서 계획적으로 조성하면서 생산을 집중화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림산 공업은 공장화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림산 공업을 공장화함에 있어서는 우선 우리 나라 산림의 구체적인 상태와 조건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산림의 축적과 채벌 간의 균형 관계를 옳게 설정함으로써 순환식 채벌 방법에 의한 생산의 집중화를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산림의 축적과 채벌 간의 균형을 옳게 설정한다면 그 지역의 중심 또는 편리한 지점에 생산과 생활의 기본 거점을 꾸리고 순환하면서 정상적인 목재 생산을 보장할 수 있다.

순환식 채벌 방법의 도입은 림산 공업의 공장화의 기본 고리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 나라 산림은 그 구성이 각이하며 나무들이 리용 경급에까지 자라나는 기간은 70~80 년이다. 그러나 산림에는 이미 리용 경급에까지 다 자란 나무, 자라고 있는 나무 그리고 방금 자라나기 시작한 나무들이 혼합되여 있으며 성숙 기간이 각이한 수목들이 있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의 산림 조건에서 채벌 주기는 대략 20~30 년으로 된다.

이것은 채벌과 산림 축적 간의 균형 설정의 과학적 기초로 되며 이러한 정확한 균형은 순환식 채벌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전제이다.

산림 축적과 채벌 간의 옳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채벌이 진행되는 차제로 계절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연, 기후적 조건에 맞는 경제적인 수종들을 점차 증대되는 규모에서 심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채벌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림목의 피해를 적게 하고 이미 심어 놓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 사업을 잘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인민이 이 사업에 관심하도록 하며 특히는 나무를 직접 채벌하는 림업 일'군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그들을 살림살이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상으로 철저히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 축적과 채벌 간의 균형을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반복 채벌을 피하고 리용 경급에 도달한 나무들만을 먼저 채벌하여 채벌의 순환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무들의 성숙을 촉진하므로 산림 축적을 채벌에 앞세울 수 있게 한다.

림산 공업의 공장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운반 공정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무엇보다도 이 부문에서 기계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

우선 운재 공정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림산 공업에서의 생산 공정은 벌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운재 작업으로 되여 있다.

이 공정은 자연 지리적 조건, 산림 조건 및 계절적 조건 등에 의하여 일정한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이 부문에서는 각이한 방법에 의한 운재 공정이 도입된다. 험한 산 지대에서는 삭도, 잉크라잉, 단선 로라 등에 의한 운재 공정이 도입되며 경사가 심하지 않은 지대에서는 뜨락또르, 자동차, 기관차 등에 의한 운재 공정이 도입된다. 그 뿐 아니라 여름에는 산하천의 물, 겨울에는 눈판이 운재에 광범히 리용된다. 이와 같이 운반 공정에는 다양한 운재 수단들과 방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양한 운재 수단과 방법의 적용은 단일 운반 경로에서는 불합리하다.

운재 과정을 여러 공정으로 조직하면 할수록 상하차 작업이 증가되며 따라서 여기에는 보충적 생산 수단과 로력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재 공정을 단순화하면서 중간 운재 거리를 단축하는 방향에서 생산 과정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것은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생산 과정에 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모조리 탐구 리용하는 문제이다.

특히 현재 운재 거리가 멀어진 조건에서 지형 조건과 계절적 조건 등에 따라 자연력을 운재 공정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례하면 여름철에 운재에서 산하천들을 리용한다면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생산량을 훨씬 증대할 수 있으며 산지 경사를 리용한다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운재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신양 림산 사업소 설령 작업소는 이런 면에서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이 기업소에서는 물이 흐르는 험한 골짜기에서는 수통 운재, 경사가 심한 산판에는 단선 로라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매년 근

10만 립방 메터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목재를 운반해 내고 있다.

이곳에서는 특히 림철선에 잉크라잉을 련결시켜 중간 운재 거리를 단축하고 같은 림철 대차를 두 공정에서 리용케 함으로써 생산 과정을 단일하게 련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자연 조건을 생산 공정에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일은 헐하게 하면서도 높은 능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준다.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림산 작업 전반, 특히는 운반 공정을 전면적으로 기계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점차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림산 공업에서 로동 지출의 절대적 비중이 운재 부문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공업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림산 공업에서도 현대적 기계 기술에 기초함으로써만 목재 생산을 급속히 장성시킬 수 있으며 림산 로동자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수 있다.

목재 생산의 기계화 및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설비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예비 부속품 생산을 선행시키며 현존 기계 설비들의 리용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현대적인 림산용 기계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리 하여 림산 공업의 전 생산 과정이 다른 부문의 공장과 같이 현대적인 기계 기술에 기초한 생산 체계로 전환되게 하여야 한다.

림산 공업을 공장화함에 있어서는 또한 림산 마을들을 중심으로 하여 목재 가공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목재의 종합적 리용 대책을 추진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림산 마을의 부양 가족들을 생산에 인입할 수 있게 하며 채벌한 나무의 초리, 아지, 뿌리까지 전부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 향상에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목재의 리용 측면을 확대한다. 따라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목재 생산으로써도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당이 제시한 바와 같이 림산 작업소들의 생산 과정을 나무의 채벌로부터 시작하여 부산물의 종합적 리용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정연한 생산 체계에로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다.

림산 공업을 공장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의 다른 하나는 림업 로동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순환 채벌 지구의 중심 지역에 림산 마을을 형성하고 여기에 모든 문화 후생 시설들을 갖추어 줌으로써 이곳을 림업 로동자들의 고착된 생활처로, 고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림업 로동자들로 하여금 공장 로동자들과 같이 조직적이며 규률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가족과 함께 생활하게 함으로써 과거의 《처서관식》 낡은 생활 관습을 철저히 극복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림업 로동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림산 작업용 운수 수단들을 그들의 출퇴근 시에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불비하거나 림산 마을과 채벌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채벌장에 합숙들을 아담하게 꾸려 그들의 편리를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한다.

림업 로동자들을 공장 로동자들과 같이 안착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에 있어서 중요한 다른 하나는 상부 토장을 잘 꾸리는 것이다.

림산 공업 기업소들에서의 상부 토장은 공장의 직장과 같다.

상부 토장은 채벌장, 하부 토장, 합숙 및 림산 마을을 련결하는 고리이다.

그것은 채벌장과 하부 토장과의 생산 과정에서의 련결도 상부 토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로동자들이 아침 저녁에 모이는 곳도 바로 이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선전실, 학습실, 오락실 등을 잘 꾸려 주어야 로동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킬 수 있다.

그런데 상부 토장은 고정적으로 오래 동안 고착되지 않는다. 상부 토장은 베일 나무를 따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건설되는 모든 시설물들은 반드시 이동, 조립식으로 되여야 한다.

림산 공업을 공장화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관리 사업을 림산 공업의 특수성에 적응하게 조직 진행하는 것이다.

림산 공업의 관리 사업의 개선 방침은 이미 1963년 8월 김 일성 동지가 량강도 현지 교시에서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것은 작업소를 관리 운영의 기본 단위로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림산 사업소들은 몇 개 생산 지역들을 포괄하는 림산 구역 단위로 조직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림산 사업소는 로동자들의 생활과 로동의 조직적 단위로 될 수 없다.

그러나 작업소는 림산 마을에 위치한 로동자들의 생활처이며 사회적 생산의 기층 단위이다. 림업 로동자들은 작업소를 거점으로 하여 생활하며 바로 여기에서 산림 자원의 조성 및 채벌 작업이 조직된다.

작업소는 작업소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하에 모든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림산 사업소의 지시 하에 경영 활동을 조직 진행한다.

그러므로 림산 공업을 공장화하자면 림산 작업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있어서 림산 작업소 당 위원회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림산 작업소 당 위원회들은 작업소 지도 일'군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로 하여금 대중에 의거하여 기술 준비를 비롯한 모든 생산 준비와 생산 조직을 과학적으로 진행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림산 사업소, 총국, 관리국, 성 기관들은 새로운 지도 체계에 적응하게 지도 방법을 개선하고 직접 아래에 내려 가서 도와 주며 후방 공급 사업을 책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작업소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공고화하고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더욱 북돋아 주어야 한다.

림산 공업 부문 당 단체들은 보다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여 당이 이 부문 앞에 제시한 혁명 과업을 영예롭게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구악을 무색케 하는 신악

신 복

최근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신악을 반대 배격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가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 체험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응당한 귀결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미제의 조종 하에 여러 차례 교체된 력대 괴뢰들 치고 사회적 혼란과 민생고를 증대시킨 죄과를 범하지 않은 자는 없다.

리 승만도, 장 면도, 박 정희도 다 하나 같이 미제와 함께 그러한 죄행의 장본인들이다.

그러나 오늘의 남조선 현실은 박 정희 도당이야말로 선행 위정자들을 훨씬 릉가하는 죄악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박 정희 도당이 집권한 후 3 년여에 걸친 기간 남조선은 사회적 혼란과 민생고가 전례 없이 심화된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남조선에는 700만이나 되는 실업자와 반실업자, 130만이 넘는 절량 농가, 800만에 달하는 제 집 없는 사람들, 600만 명의 지스토마 환자와 240만 명의 신경 분렬증 환자, 315만 명의 문맹자와 100여만 명의 미취학 아동들이 있다는 것은 남조선의 극심한 사회악과 민생고를 그 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

남조선에 조성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은 사회의 광범한 계층들 속에서의 현 《정권》에 대한 불평 불만을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다.

남조선 출판물까지도 이에 대하여 《구악 부패의 일소》를 념불처럼 외우는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구악이 일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구악보다도 더 큰 죄악이 횡행하게 되였다고 쓰고 있다.

따라서 신악을 반대 배격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목소리는 남조선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정당하고 절실한 것이다.

* *

현 남조선 위정자들은 미제의 조종하에 괴뢰 정권에 들어 앉은 시초부터 남조선의 모든 사회악을 제거하겠다고 굉장히 떠들어 댔다.

박 정희 도당은 소위 《혁명 공약》에서 《모든 부패와 구악의 일소》, 사회의 《청신한 기풍의 진작》 등 허울 좋은 말들을 늘어 놓았다.

그러나 오늘의 남조선 현실은 그들이 늘어 놓은 말들이 허황한 잠꼬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박 정희가 집권한 후 3 년 간에 남조선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부정, 부패의 경향이 전례 없이 우심해졌다.

남조선의 《대한 일보》는 《오늘날 우리의 민생의 어려움이 이처럼 무자비하기로는 일제 년간에조차 없었던 일이고 개국 4,000 년 이래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일이였다.》고 쓰고 있다.

남조선에서 사회악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남조선 사회 제도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사회악의 산생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소수의 착취자들은 자기들의 리윤 획득에 유리하다면 그 어떠한 범죄 행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행한다.

맑스는 한 책의 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연이 진공(眞空)을 두려워 하는듯이 자본은 리윤이 없거나 또는 리윤이 극히 적은 것을 두려워 한다. 상당한 리윤만 있다면 자본은 과감해진다. 10%의 리윤이 보장된다면 자본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20%의 리윤이라면 자본은 활기를 띠며, 50%이라면 적극적으로 대담해지며, 100%이라면 인간의 법을 모두 유린하며, 300%이라면 자본에게는 단두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범하지 않는 범죄는 없다》 (《자본론》 제 1 권 2 분책, 530 페지).

자본가의 바로 이러한 경제적 본성은 사회 정치적 면에서 반동화를 촉진시키며 침체, 부패의 경향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사회악이 불가피하게 산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조선에서의 사회악의 증대는 남조선 지배층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관련되고 있다.

오늘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 및 봉건적 생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예속 자본가, 지주 등이 지배 계급으로 되여 있다.

남조선에서는 약 500 명의 예속 자본가들이 남조선 경제의 주요 명맥을 틀어 쥐고 있다. 중요 경제 부문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제조 공업에서 40%, 채취 공업에서 약 80%, 대외 무역에서 50% 이상에 달한다.

또한 남조선에서는 약 10만의 지주들이 미제의 남조선 농촌 략탈의 중요한 기둥으로 되고 있다.

이 모든 착취자들은 미국 독점 자본이 베푸는 이른바 《특혜》 조치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미제에게 의탁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지배층이 인민들을 가혹하게 억압 착취하며 그 어떠한 일도 거리낌 없이 감행하는 경제적 기초로 된다.

이상의 사실은 남조선의 사회악이 사회 제도 자체로부터 나오는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남조선의 력대 괴뢰 정권 하의 매시기마다 사회악은 계속 증대되였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의 사회악은 그 범위와 심도에 있어서 선행 《정권》 당시의 그것을 훨씬 릉가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여지 없이 유린 말살되고 있는 데서 표현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애국적 력량과 진보적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반공법》, 《인신 구속에 관한 림시 특례법》,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정당법》 등을 비롯하여 무려 3,560여 건의 악법들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들은 리 승만, 장 면이가 집권한 15 년 간에 3,325 건의 악법을 조작한데 비하여 단 3 년 간에 239 건이나 더 많은 악법을 조작하였다.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이 매일 3 건 이상의 악법을 조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정희 도당이 조작한 이 악법들은 수'자 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 측면에서도 종전의 악법들을 릉가하였

다.

즉 리 승만 시기에 진보적인 세력을 탄압 말살하기 위하여 조작한 《국가 보안법》에서는 《반 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그의 지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처벌하기로 규정되여 있었다면 박 정희 도당이 조작한 《반공법》,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반 국가 단체와 그 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처벌하기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놓았다.

동일한 형의 형벌에 있어서도 종전에 비하여 비할 바 없이 가혹하게 되였다.

《국가 보안법》에서는 《반 국가 행위의 선동 선전죄》에 대하여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가하고 있으나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가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리 승만의 《시위 행렬 및 집회 규칙》, 장 면이 조작하려면 《데모 규제법》보다 더 반동적인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집회와 시위에 대한 각종 부당한 제한 조항들을 설정하고 있다.

남조선에는 이 외에도 《로동 쟁의 조정법》, 《사회 단체 등록에 관한 법》, 《신문 및 통신에 관한 법》, 《방송법》 등 각종 파쑈적 악법들이 있다.

이와 같이 박 정희 도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행위에 대하여 마음 대로 처형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놓고 인민들에게 파쑈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

1962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남조선에서는 구속 령장에 의하여 검거된 건수가 무려 7만 2,812 건에 달하였으며 수 많은 애국적 민주 인사들이 무참하게 처형, 학살 당하였다.

작년 5월에도 박 정희 도당은 소위 《국가 반란 음모 사건》을 날조하여 《4월 혁명단》, 《4월 혁명 총련맹》 등 애국적 단체들의 간부들을 체포 투옥하였으며 그 후 괴뢰 국회 의원 선거 시에는 《외군 철수, 남북 협상, 평화 통일》을 주장한 사람들을 《승공 통일 국시 위반죄》로 체포 구금하였다.

그들은 6.3 봉기 시에 《친진보, 반보수(親進步, 反保守)》를 주장한 《민족 민주주의 장례식》까지도 반《정부》 음모라고 하면서 《내란죄》를 적용하였으며 애국의 일념에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청년 학생들의 시위 투쟁을 《란동》으로 몰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들씌우고 있다.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이 저들의 잔명을 부지하려는 파쑈적 광란에 불과하다.

남조선에는 그 어떤 공정한 법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무법과 전횡만이 지배하고 있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까지도 《종래에는 6 법이 있었는데 요즘은 무법과 불법이 횡행 첨가되여 8 법으로 되였다.》고 개탄하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신악은 또한 지배층의 부정, 부패 행위가 우심한 데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세상에 폭로된 바와 같이 남조선 괴뢰들은 《풍한 산업》의 김 모에게서 2억 환, 《4대 의옥 사건》을 통하여 2천만 딸라를 받아 먹었다. 또한 《삼분 폭리 사건》에서 69억 원, 《한 일 회담》의 흑막인 《대일 청구권》의 일부로서 1억 3천만 딸라, 어업 문제 흥정의 《선금》, 《대통령 선거》와 《국회 의원 선거》 자금 등으로 수억 원을 받아 먹었다.

남조선에서 날마다 꼬리를 물고 드러나는 대규모의 투기, 모리 행위와 함께 《세제 개혁》이니, 《특별 융자》니 하면서 지주, 예속 자본가들에 대하여 《특권》을 부여해 준 대'가로 박 정희 도당이 횡취한 금액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오늘 기아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남조선 천지를 뒤덮고 있으나 박 정희 도당은 사기, 뢰물, 기부금의 형식으로 인민들로부터 실로 막대한 돈과 재물을 략탈하고 있다.

박 정희가 개인 명의로 저금한 것만 해도 《적게 잡아서 500만 딸라》이고 김 종필은 《그것의 2 배》이며 《최고 회의 의원》들이 은밀히 사취한 것이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스턴월드》)

박 정희 도당이 인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 벌려 놓은 소위 《부정 축재자 처벌》 책동이 흐지부지되고 만 리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속담에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고 괴뢰 정권 상층들의 이와 같은 부정 축재 행위는 말단 관리들에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돈'벌이》의 하나로서 매관, 매직 행위를 례사로 감행하고 있는데 《군수》 한 자리에는 최소한 30만 원, 《서장》급은 20~30만 원, 《사무관》급은 10만~15만 원씩 받아 먹고 있다.

박 정희 무리들의 부정 행위 중 괴뢰 정부의 94 개 《중앙급 기관》들에서 빚어낸 것만도 《군사 정변》 이후 지난해 3월까지의 기간에 무려 7, 850여 건으로서 그 총액은 괴뢰 정부의 1963년 《예산》의 3 분의 1에 해당하는 250억 원에 달한다(《한국 일보》).

지금 남조선에서 괴뢰 중앙급 기관들의 관료들 뿐만 아니라 괴뢰 군대 내의 상층까지 사병들의 부식비와 군 보급 물자를 략취하는 사기, 협잡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이 박 정희 도당의 부정, 부패 행위에 대하여 《구악을 찜 쪄 먹는 신악》, 《박 정권 치하는 부정, 부패의 전성기》라고 야유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에서 신악은 또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에 의한 경제의 극심한 파국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남조선의 군사 통치배들은 집권 초기부터 《자립적 경제 건설》이니, 《민생의 구출》이니 하는 허울 좋은 말들을 떠들어 댔다.

그러나 남조선의 경제 형편은 그 구호들이 공담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이 집권한 이후 오늘까지의 기간에 남조선 경제는 더욱더 파국에로 굴러 떨어졌다.

지난 5월 3일에 있은 환률 인상 이후에만 해도 남조선 중요 기업은 원료난, 자금난, 판로난으로 하여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으며 이로 인하여 공업 생산은 더욱더 저하되였다. 남조선 농촌 경리도 파괴 령락되였다. 오늘 남조선 농촌의 유일한 생산 도구는 낡은 호미와 낫, 보습에 불과하며 그것마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다. 또한 관개 수리 시설이 한심한 형편에 처해 있음으로 하여 농민들은 해마다 자연 재해로 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결과 남조선 공업, 농업 생산은 극도로 저하되였다. 남조선 공업 생산 수준은 해방 전에 비하여 85%로 떨어졌으며 농업 생산은 3 분의 2로 줄어 들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실업자와 절량민

들의 수를 더욱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최근 남조선 출판물들이 《신악 밑에서. 기아 선상에 헤매이는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 혁명 공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민들의 생활은 날로 비참해 갈 뿐이다》고 개탄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박 정희 도당은 또한 최근 일제와 결탁하여 일본 독점 자본까지도 끌어 들이고 있다.

군사 정권 하의 3 년 간에 일본 독점 자본은 《기술 제휴》, 《무역》, 《기술 협조》, 《보세 가공 무역》, 《직접 투자》 등 형식으로 남조선에 침투하고 있다. 1963년 현재 남조선에 침투한 일본 독점 상사의 수는 73 개에 달하고 있다.

이 독점 상사들은 남조선에서 직접 간접으로 경제적 착취와 략탈을 감행함으로써 파국에 처한 남조선 경제를 더욱더 파멸의 길에 몰아 넣고 있다. 이것은 박 정희 도당이 남조선 경제를 미 일 제국주의의 2중의 예속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남조선에서 신악의 다른 하나의 측면은 양풍과 왜풍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유구한 민족 문화와 미풍 량속이 여지없이 유린 말살되고 있는 것이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퇴폐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계속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양풍과 왜풍을 끌어 들이는 것은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킴으로써 그들을 제국주의의 노예로 만들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의 부패한 문화를 끌어 들여 민족 문화를 말살한 죄과에 대하여 말할 때 남조선의 모든 력대 위정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도 박 정희 도당이 범한 죄행은 선행 위정자들을 무색케 할 정도이다.

현재 남조선에는 외세에 대한 굴종과 인간 증오 사상을 고취하며 패륜 패덕과 색정주의를 례찬하는 미 일 제국주의 문학 예술 작품들이 범람하고 있다.

남조선에 범람하고 있는 예술 작품들은 모두가 양풍과 왜풍으로 충만되고 있다. 그것은 주로 남녀 간의 추잡한 관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백주에 복면을 하고 재물을 강탈하는 살인 강도들을 《용감한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들이다.

부패한 미 일 제국주의 반동 문화의 침습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극심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조선에서 감행되고 있는 각종 범죄 행위, 세기말적인 패륜 패덕 행위 중에는 남조선의 반동적 문학 예술 작품들을 읽고 그 주인공을 모방한 행위들이 적지 않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살인, 깽, 절도, 사기, 협잡 등 일련의 범죄적 사건들이 증대되고 있다.

군사 정변이 일어 났던 1961년에 하루 평균 1,296 건에 해당하는 47만 3,522 건의 각종 범죄가 발생하였다면 1962년에는 72만 7,985 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1963년 9 개월 간에만도 56만 9,658 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범죄 건수의 증가와 함께 그 형태도 더욱 흉악해지고 있는바 친족 살해, 강도 살인, 치정(癡情) 살인 등 끔찍스러운 참극들이 날마다 신문 지상에 보도되고 있다.

또한 박 정희 도당은 수 많은 남조선 녀성들을 미제 침략군의 롱락의 대상으로 내몰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에 둥지

를 틀고 있는 미제 침략군의 《권태증을 풀어 준다》고 하면서 서울과 지방에 《워커힐》을 비롯한 각종 《유흥장》을 증설하여 놓고 9만여 명의 녀성들을 미군의 《위안부》로 만들었다.

우리 나라 조상 전래의 미풍 량속이 남조선에서처럼 여지 없이 유린 말살된 적은 일찌기 없었다. 바로 박 정희 도당이 《명랑한 사회》, 《청신한 기풍》으로 묘사하는 오늘날의 남조선 사회의 실태는 이러하다.

남조선에서 사회악이 전례 없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현 남조선 괴뢰 정권의 계급 구성과 관련된다.

박 정희를 비롯한 현 남조선 괴뢰 정권의 두목들은 거의 다 친미, 친일 파쑈 테로 분자들이며 미제가 체계적으로 길러 낸 특무들이다.

이러한 《관록》의 소유자들로 꾸려진 《제 3 공화국》, 《국회 의원》의 계급 구성을 보면 그 대부분이 예속 자본가, 지주, 관료배, 정상배들이며 기본 계급인 로동자, 농민의 대표는 한 명도 없다. 또 괴뢰 정부의 《관료》들의 계급 구성을 보아도 모두다 친미, 친일 분자들이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미제와 괴뢰 정권이 존재하는 한 사회악이 더욱 증대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가 철폐되지 않는 한 그 누가 정권 기관에 들어 앉든지 간에 남조선 정권이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권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처지에도 개선이 있을 수 없다》(《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단행본, 103 페지).

* *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 미제가 남아 있는 한 그 어떠한 괴뢰가 《정권》에 들어 앉든지 간에 사회악은 결코 제거될 수 없으며 따라서 《구악》을 무색케 하는 《신악》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따름이다.

남조선에서 온갖 사회악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인민 정권의 수립이다.

력사는 진정한 인민 정권이 수립되였을 때 온갖 사회적 혼란과 민생고는 제거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진정한 인민 정권 하의 공화국 북반부는 해방 직후에 이미 과거의 사회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건전하게 발전하여 왔다. 오늘 북반부 인민들은 사회악에 대하여 과거 사회의 낡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도 북반부 인민들이 걸어 온 길을 따라 확고히 전진하여야 한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화근인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만이 실현될 수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이 숭고한 혁명 과제를 반드시 실현하고야 말 것이다.

인종주의와 미국의 대내외 정책

엄 창 종

오늘 미국에서 흑인들에 대한 인종적 차별과 인종 격리 문제는 가장 날카로운 사회 계급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미국 흑인들은 소위 《노예 해방 선언》이 선포된 지 100 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인간 이하의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고 있다. 미국 인구의 11%를 차지하는 2천만의 미국 흑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혹심한 인종적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학살까지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종적 차별과 멸시는 결코 개별적인 인종주의자들이나 그들의 단체들에 의해서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다. 인종주의는 미국의 대내외 정책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형식적으로는 인종 차별을 철폐할 데 대한 각종 《법안》들이 조작되고 있고 흑인들의 《평등》과 《자유》에 대한 신화가 류포되고 있지만 이것은 미제의 반동적인 인종주의 정책을 엄폐하며 흑인들의 투쟁을 무마하려는 기만에 불과하다.

오늘 미 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세계 반동의 지주일 뿐만 아니라 현대 인종주의의 아성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인종주의는 국내에서 흑인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로, 타민족 즉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 인민들을 략탈하고 노예화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

1

인종주의는 인간들의 비본질적인 외부적 특징(피부색, 머리칼과 눈의 색갈 등)으로써 인간을 《고등》 인종과 《렬등》 인종으로 구분하는 사회 생물학적 반동 사상이다.

여기로부터 인종주의는 인간들의 피부색이나 기타 생물학적 징표와 사회 문화적 발전에 따라 인간 집단을 《고등》 인종과 《하등》 인종으로 구분하여 놓고 한 인종은 다른 인종에 비하여 《고등》하기 때문에 지배자로 되여야 하며 그와 반대로 다른 인종은 《렬등》하기 때문에 《고등》 인종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노예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여기에 이 《리론》이 지배 계급의 착취의 도구로, 식민지적 략탈과 침략의 사상적 무기로서 리용되는 바탕이 있으며 그 반동적 본질이 있다.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종적 차이는 자연적인 외부적 현상으로서 인간의 사회 문화적 활동

능력의 발전에는 아무런 본질적 의의도 가지지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종적 차이가 인종 차별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되게 된 것은 오직 계급의 출현, 계급적 지배의 형성과 관련되여 있는 것이다. 즉 인종 차별은 사회적 현상이며 계급 사회의 산물이다.

현대 인종주의는 이미 구라파 자본주의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침투하여 원주민들을 략탈하기 시작하던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 시기에 이르러 체계화되고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원주민들을 노예화하며 잔인한 략탈을 감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상적 공간으로 리용되였다.

인종주의는 벌써 국내적 범위를 벗어나 대외 침략의 사상적 무기로 되였다.

인종주의자들은 유색 인종에 대한 착취와 압박, 피지배 계급의 계급적 각성을 모호하게 하며 그들의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며 저들의 세계 제패를 위한 반동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인종주의를 리용하고 있다.

부르죠아 인종주의자들은 생물학적 성과를 외곡하고 인류는 같지 않는 자기의 선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선조에 따라 인류는 선천적으로 《우렬》의 차이를 가진다는 인류 기원의 《다원론》을 제창함으로써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대외 침략과 략탈을 정당화하고 유색 인종의 지배를 합리화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19 세기 불란서의 외교가이며 **현대 인종주의** 창시자인 고비노는 자기의 저서 《인종의 불평등에 관한 경험》에서 다른 모든 인종에 비하여 아리아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아리아족만이 유일하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인종이라고 설교하였고 영국의 사회학자 키트는 자기의 저서 《열대 지방에 대한 통치》에서 사회적 진보는 자연 도태의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생물학적으로 더 《완전》한 민족은 모든 면에서 《우월》하며 《불완전》한 민족은 그 《불완전》성 때문에 보다 《완전》한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당시 식민지 략탈의 선두에 서 있던 영국과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조작된 이 《인종론》은 아프리카에 대한 영국 식민지 략탈의 직접적 집행자였던 쎄실-로즈나, 중근동에 대한 불란서 식민지 정책의 집행자였던 쥴페리 등 부르죠아 정치가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을 위한 중요한 사상적 무기로 되였다.

인종주의가 제국주의 대외 침략의 로골적인 사상적 무기로 리용된 것은 독일 파씨즘의 대두 시기이다. 인종주의는 이때 벌써 제국주의 대외 침략의 무기로 체계화되였으며 파씨즘과 군국주의의 사상적 기초로 되였다.

독일 파씨즘의 사상적 대변자들은 파쑈 독일의 세계 제패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간 증오 사상으로 안받침된 파쑈적 인종론을 조작하였다. 인종론의 두목 히틀러는 소위 《위대한 민족의 창설》을 제창하고 《곤충과 같이 번식하는 수백만 렬등 인종을 살륙할 권리를 가진 나에게 항거할 자 누구냐》고 웨치면서 수백만 인민들을 가장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한때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저들의 지배를 확립하려고 망상하면서 동방 민족들 중에서 일본

민족은 《천손 민족》(天孫民族)이니, 《야마도》(大和) 민족이니 하면서 일본 민족만이 《대동아 공영권》의 《맹주》로, 아세아의 《지도자》로 될 수 있다고 떠벌렸다.

그들의 인종주의 정책은 특히 조선 강점과 중국, 동남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전쟁 시기에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종주의 정책은 제2차 세계 대전시기 파쑈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 패망과 더불어 분쇄되고 말았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인간 증오 사상으로 일관된 현대 인종주의는 세계 반동의 원흉이며 국제 헌병이며 전 세계 인민의 공동의 원쑤인 미 제국주의의 계급 지배와 침략 정책의 중요한 사상적 무기로 리용되고 있다.

2

미국은 《제노 싸이드》(인종 섬멸)의 고향이다. 아메리카 대륙이 구라파인들에 의하여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곳 원주민들은 비교적 평온한 환경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이리떼처럼 밀려 든 서구라파 식민지 략탈자들은 황금 략탈과 치부욕에 눈이 뒤집혀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략탈하였으며 살륙하였다.

이러한 대량적 학살로 인하여 로동력의 부족을 느낀 식민지 략탈자들은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네그로(흑인)들을 노예로 끌어 갔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흑인들의 수난의 력사와 류혈의 력사는 이렇게 시작되였는데 흑인과 기타 유색인들의 이 류혈의 력사의 페지마다에는 《제노 싸이드》 정책과 극단한 인간 증오 사상이 안받침되여 있다.

여기에 바로 인종주의가 세계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심각한 사회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리유가 있다.

미국에서의 인종 차별 제도는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이르러 더욱 로골화되였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였다. 오늘 인종 차별과 인종 격리 제도는 미국의 대내외 정책의 근저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

미국 국내에서 인종 차별과 인종 격리 제도는 무엇보다도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치부욕을 충족시켜 주는 데 리용되며 그에 근원을 두고 있다.

독점 자본가들은 흑인 로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으로부터 막대한 《부가 리윤》을 짜 내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전에는 북부, 동부에 집중되여 있던 대기업소들이 대전 후 미 련방 정부와 주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와 방조 밑에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부와 남부에로 이동하였다. 이것이 값 눅은 흑인 로동력을 목표로 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흑인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으로부터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년 40억 딸라에서 최고 300억 딸라에 달하는 막대한 《부가 리윤》을 얻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또한 빈번히 반복되는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출로의 하나를 흑인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에서 찾으면서 그들을 영원히 산업 예비군으로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점 자본가들은 임금 인상과 생활 향상을 위한 미국 백인

로동자들의 투쟁을 좌절시키는 데 흑인 로동자들에 대한 저임금 정책과 상시적인 흑인 산업 예비군을 리용하고 있다.

미국 지배층과 미국 독점 자본가들이 인종주의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리유는 미국에서 날로 심각화되고 있고 계급적 모순을 인종적 관계로 엄폐하며 백인 로동자들과 흑인 로동자들 간의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려는 데 있다.

미국 전체 로동 계급 대렬 중에서 20%를 차지하는 흑인 로동자들은 전투적 부분을 이루고 있는 만큼 날로 강화되고 있는 백인 로동자들과 흑인 로동 계급 간의 전투적 단결은 독점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되는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오늘 미국에서의 흑인 문제는 단순히 인종 멸시나 차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 흑인에 대한 미국 지배층들의 인종주의 정책은 인종적 차별과 계급적 압박 및 착취의 두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종 차별 제도를 반대하는 미국 흑인들의 투쟁은 인종적 평등, 해방, 자유를 위한 투쟁이며 동시에 미국 독점 자본의 계급적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흑인들은 미국 독점 자본가들이 실시하는 인종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및 사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비인간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

인종주의자들은 경제적 압력, 각종 법률적 제한, 테로, 《지혜의 검증》 등 이러저러한 수법을 통하여 선거권의 제한은 물론 흑인들에 대한 각종 정치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

1946년에 테네씨, 알라바마, 죠지아, 루이지아나, 뉴욕 등지에서 흑인 제대 군인들이 린치를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였을 때 경찰들은 그들을 마구 쏘아 죽였으며 1947년에는 《3 케이단》이 또다시 발광적으로 날뛰기 시작하였다.

로젠버거 부부가 원자 폭탄 비밀을 루설했다는 《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도 이 시기였으며 흑인 해방 운동의 로투사였던 듀보이스 박사가 국제 평화 운동에 참가하였다는 《죄》로 외국 《간첩》의 혐의를 받고 80세의 고령으로 투옥된 것도 바로 이 때였다.

이러한 인종주의적 파쑈 테로 정책은 미제의 대외 침략 정책이 적극화됨에 따라 더한층 강화되였다.

1947～1952년까지 기간에도 흑인들에 대한 투탄 사건은 무려 68건에 달하였는데 이는 년 평균 11건 이상 있은 것으로 된다.

흑인들에 대한 인종 차별 정책은 그들의 생활 처지와 취업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1962년에 출판된 《다른 하나의 미국》(이는 일명 《미국의 빈곤》이라고도 한다)의 저자 마이클 헤링톤은 흑인 로동자와 사무원들의 사회적 처지에 대하여 그들은 《가장 먼저 해고 당하고 가장 늦게 고용된다》고 하였는데 이 말 가운데는 진실이 있다.

사실에 있어서 미국 로동 계급의 주요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는 흑인 로동자들은 《3 류급 공민》이라는 리유로 극도의 취업난에 헤매고 있으며 누구보다 먼저 해고 당하고 있다. 설사 《취업》하

는 경우에도 그들은 가장 고된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흑인 로동자들은 고급 기술과 숙련을 요하는 건축, 방직, 비행기, 인쇄 및 전력 공업 등 기술 부문에서의 취업을 금지 당하고 있으며 정무원으로의 취업도 거절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흑인들은 일상 사회 생활에서 인간 이하의 학대를 받고 있다.

미국 50 개 주 중에서 30 개 주에서는 법적으로 흑인과 백인과의 결혼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22 개 주에서는 흑인 아동은 백인 아동과 함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14 개 주에서는 기차를 함께 탈 수 없으며 19 개 주에서는 뻐스나 기타 자동차도 함께 탈 수 없다는 것을 역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지방들에서는 흑인들이 극장, 영화관, 병원, 도서관, 려관, 식당, 리발관, 교회당 및 공원 등에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백인들과 한 구역에서 살 수 없게 되여 있다.

미국 흑인들에 대한 극심한 인종 차별 정책은 교육 분야에서도 심하게 표현되고 있다. 모든 착취 계급이 다 그러한 것처럼 미국의 억만 장자들은 흑인들이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 한다. 그들은 흑인들이 무지 몽매한 상태에서 저들의 노예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을 원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흑인들의 취학을 방해하며 제한하고 있다.

결과 흑인들과 흑인 청년들의 취학률은 1,000 명에 1 명의 비례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종 차별 정책은 특히 초, 중등 학교에서의 흑인 아동들의 격리에서 로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례로 인종 차별이 가장 심한 남부 주들 중의 하나인 알라바마주에서는 흑인 학생 총수 28만 9,000 명 중에서 백인과 공학하는 흑인 아동들은 단 한 명도 없다.

교육 분야에서의 이러한 극단한 인종 차별 정책의 결과 미국에 있는 문맹자 총수의 90%는 흑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흑인 아동들과 청년들의 대부분을 문맹자로 만들어 놓고는 흑인 로동자들의 로임이 백인 로동자에 비하여 낮은 리유를 미국 자본가들은 흑인 로동자들의 무기능, 미숙련 등에 빙자한다. 이것은 파렴치한 궤변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소위 《민주》, 《자유》, 《평등》에 대하여 떠들고 있으나 뒤에서는 《3 케이단》, 《존 버취 협회》와 같은 인종주의 파쑈 테로 단체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조종하여 흑인들에게 야수적인 폭행을 감행하고 있다. 《3 케이단》만도 전국에 500 개 이상의 지방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명칭 자체가 괴상한 인종주의 《전람회》라는 것을 공공연히 벌려 놓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미국에서 인종주의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가를 넉넉히 알 수 있다.

인종주의는 미국의 대내 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서도 로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국내에서의 인종 차별 제도는 국외에서의 유색 인종에 대한 략탈과 살륙 정책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인간 증오 사상인 인종주의를 고취하면서 앵글로-색손족

은 문명의 담당자로, 세계 지배자로 되여야 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미국 인종주의자들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세계 도처에 설치한 군사 기지에 파견되는 미군 장교들과 병사들에게 우선 고취하는 것은 앵글로-색손족의 《우월성》에 기초한 인종주의 감정과 인간 증오 사상이다.

조선 전쟁 시기에 미 제 8 군 사령관은 병사들에게 《설사 그대들 앞에 있는 것이 어린애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대들의 손이 떨려서는 안 된다. 죽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자신을 파멸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며 또 유엔 병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고 명령하였다. 여기에 바로 미국 식인종들의 인간 증오 사상과 그들의 인종주의적 야수성이 있다. 여기에는 또한 유색 인종에 대한 증오 사상과 함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제도를 증오하는 그들의 반공산주의 사상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여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에서 로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종주의 정책의 기저에는 신말사스주의가 안받침되여 있다.

《미 제국주의자와 그들의 고용 학자들은 전쟁과 략탈의 류혈적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지구 상 인구 과잉에 관한 학설을 류포시키며 대량적 인명 학살을 호소하며 원자 무기와 세균 무기를 찬양하고 있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1954년 판, 270 페지).

미 제국주의자들은 미국의 대표적 말사스주의자의 한 사람인 존 로빈스가 《아세아인은 너무 많다》라는 자기 저서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유색인들에 대한 멸시감을 고취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아세아인들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 공포에 떨고 있다. 즉 로빈스는 《렬등》한 아세아인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인구의 과잉》으로 하여 《침략》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살륙하여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 정책에서의 미 제국주의자들의 인종주의 정책은 또한 악명 높은 남아프리카 버워드 인종주의 당국과 남로데시아 인종주의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비호와 지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현대 인종주의의 두목이며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철두 철미 인종주의로 일관되여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3

미 제국주의의 대내외 정책에서의 인종주의는 그 반동성으로 하여 국내에서 흑인들을 포함한 진보적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로부터 철저한 규탄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인종적 차별 제도를 반대하는 흑인들의 투쟁은 오늘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것은 미국 로동 계급의 전반적 투쟁에 합류되면서 전국적

규모에서 대중적 투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늘 미국 흑인들의 반인종주의 투쟁은 단순한 경제 투쟁이나 부분적 인종차별 반대 투쟁의 테두리를 벗어 나 점차 인종주의 정책의 근원이며 그들의 불행의 화근인 미국 독점 자본과 그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면서 사회 계급적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날로 고조되고 있는 이 투쟁은 1955년 알라바마주의 몽고메리에서 있었던 차별 뻐스 반대 투쟁을 계기로 새로 앙양되기 시작하였다. 1955년의 차별 뻐스 반대 투쟁으로부터 1956년 알라바마 대학에서의 루씨양 사건, 1957년 어컨써주 리토르로크 고등 학교 사건, 1961년 프리덤 라이더스 운동, 1962년의 미시시피 대학 사건을 거쳐 1963년 버밍감 사건과 워싱톤 대행진에 이르기까지 흑인들의 투쟁은 거의 해마다 더욱더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이 투쟁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은 투쟁 규모의 확대와 함께 종전까지의 중요 투쟁 형태였던 항의, 앉아 버티기, 태업 등의 투쟁으로부터 점차 실력 축적, 실력 행동에로 이행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새로운 투쟁 형태에로의 이행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1963년 8월에 있은 20여만의 대군중이 참가한 워싱톤 대시위 행진 투쟁이다.

이것은 반인종주의 투쟁에서 일찌기 그 류례를 볼 수 없는 대규모적이며 련대성을 시위한 투쟁이다.

이 대시위 투쟁은 평등한 권리를 목적하는 싸움의 시작이며 동시에 미국에서의 반인종주의 투쟁의 하나의 리정표로 된다. 즉 이 투쟁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것이 조직되고 규모가 크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그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 온 5만여 명의 백인 로동자들이 참가함으로써 미국에서의 반인종주의 투쟁이 인종적 한계를 벗어 나 계급적으로 단결하여 가고 있으며 흑인 근로자들과 백인 근로자들 간의 계급적 련대성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워싱톤 대시위 투쟁은 그 후 흑인들의 반인종주의 해방 투쟁에 큰 고무적 힘을 주었고 그들의 투쟁을 점차 혁명적인 형태로 발전시킴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다.

지난 7월 하순 태평양 루손섬(비률빈) 근방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 항공 모함 《콘스텔레이슌》 호에 고용된 흑인들과 백인들 간에 벌어진 투쟁이 보여 준 바와 같이 반인종주의 투쟁은 미국 침략군에 복무하는 흑인 군인들 속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미국 흑인들의 투쟁은 또한 지난 7월 25일에 뉴욕주의 로체스터시에서 있은 1,000여 명의 흑인들과 진보적 백인들의 투쟁을 비롯한 수다한 실례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점차 폭동적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흑인들의 강력한 진출에 질겁한 미국 지배층들은 이 투쟁을 교살하기 위하여 파쑈적 탄압과 함께 각종 회유 기만 술책에 매달리고 있다.

현대 인종주의의 두목인 미 제국주의자들은 흑인들의 상층을 매수함으로써 흑인들 속에서 독점 자본의 반동 정책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며 흑인들의 반인종주의 투쟁을 말살하려고 날뛰고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목적 밑에 흑인들의 《평등》 과 《자유》를 《옹호》하는 각종 법령을 조작하고 있는데 1960년의 《신공민권법》과 1964년의 존슨의 《민권법안》은 그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떠한 기만, 회유 술책으로써도 각성된, 단호한 투쟁에 궐기한 미국 흑인들의 투쟁을 무마할 수 없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인종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은 미국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제가 발을 붙이고 있는 모든 곳에서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더욱더 강력히 전개되고 있다.

미제의 인종주의 정책이 그들의 대외 침략과 전쟁 정책의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와 밀접히 결부되여 있는 만큼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투쟁도 그들의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의 구성 부분으로 되고 있다.

오늘 이 지역 인민들의 강유력한 투쟁은 미국 인종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 인종주의자들의 지반은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현대 인종주의의 두목인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강력한 진출은 미국 흑인들의 투쟁에 대한 고무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편 미국 흑인들의 투쟁은 전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 대한 실제적 지지로 된다.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미제의 인종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일떠선 미국 흑인들의 편에 확고히 서 있다.

오직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단합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 미국 인종주의자들은 지구 상에서 매장되고야 말 것이며 인종주의자들의 기반 하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은 진정한 평등과 자유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

혁명 전통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

(《혁명 선렬들의 생애와 활동》(1)에 대하여)

《우리는 혁명 선렬들의 영웅적 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 하여 모두가 다 항일 빨찌산들이 백두 밀림에서 싸우던 그런 혁명 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 일 성).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직속 당 력사 연구소에서 편찬한 《혁명 선렬들의 생애와 활동》 제 1 집이 최근에 발간되였다.

이 책에는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에 참가하여 원쑤들과 견결히 싸우다가 조국 광복의 날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고귀한 일생을 혁명에 바친 리 권해, 리 학만, 허 송학, 손 원금, 박 록금, 허 형식, 신 광순, 리 계순 동지들의 빛나는 생애와 활동이 서술되여 있다.

혁명 선렬들의 일가 친척과 그 전우들이 쓴 이 글을 통하여 우리는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이였던 그들이 조국 존망의 시기에 분연 투쟁의 길에 나섰으며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간고한 반일 투쟁을 진행한 과정에서 열렬한 애국자로, 과학적 세계관을 소유한 진정한 공산주의자로, 단련되고 검열된 혁명 투사로 성장한 자취를 력력히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글들에서 혁명 선렬들의 전 생애에 일관된 혁명 정신과 불굴의 투지, 열렬한 조국애와 혁명 임무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혁명적 동지애와 원칙적 단결, 실천적 경험이 안받침되여 있는 인민적 사업 작풍과 혁명적 사업 방법 등의 생동한 모범을 감명 깊게 읽게 된다.

이 책은 혁명 선렬들의 고결한 혁명 정신과 고상한 품성의 비상한 감화력으로 하여 우리들을 철저한 계급 투쟁의 원칙과 혁명가적 기풍으로 무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뿌리를 깊이 인식하며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보다 폭 넓고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우리는 우선 이 책을 읽으면서 선렬들의 혁명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백절 불굴의 투지의 생동한 모범을 본받게 된다.

선렬들은 항상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긍지로 하여 혁명의 승리를 믿고 어떤 역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투쟁 정신과 미래를 사랑하는 락천주의로 충만되여 있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항일 무장 투쟁은 력량 상 우세하며 간악하고도 야만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한 간고한 투쟁이였다.

당시 일제는 100만 《관동군》과 50여만의 위만군, 그리고 《지나 파견군》, 헌병, 경찰, 자위단 등 일체 무력을 동원하여 빨찌산 《토벌》에 광분하였다.

이런 강적과 국내외적으로 아무런 무장적 지원과 후방도 없이 놈들의 사면 포위 속에서 15 성상을 하루와 같이 투쟁한 선렬들의 고난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그들은 수백, 수천 차례의 전투, 끝 없는 밀림을 헤치며 설령을 넘나드는 행군,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수십 일씩 낟알 구경을 못 하는 모진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굴함 없이 확고한 승리의 신심으로 싸워 이겼다.

혁명 선렬들의 이와 같은 승리의 신심과 불요불굴의 투지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선렬들은 압박 받고 천대 받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로서 변변히 배우지도 못 하고 투쟁의 길에 나섰으나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맑스-레닌주의를 부단히 학습하고 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 실천에 그것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을 확립하게 되였다.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그들은 사회 발전의 법칙에 따라 일제는 불가피하게 멸망하며 항일 무장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졌다.

혁명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으로 무장한 그들은 물과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굳은 신조로 온갖 난관을 극복 타개하였으며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혀 들지 않는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 지조를 견지하였다.

두 눈을 다 잃고도 혁명 승리를 위하여 놈들의 박해와 밀정들이 우굴거리는 속에서 《…굴종은 노예의 길이다. 투쟁만이 오직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굴함 없이 군중 선전 공작을 계속한 손 원금 동지, 놈들의 야만적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원쑤를 단죄하고 끝까지 공산주의자답게 싸운 리 권해, 박 록금, 리 계순 동지를 비롯한 모든 선렬들의 혁명 투쟁은 그들이 얼마나 승리의 신심과 불굴의 투지로 충만되여 있었는가를 잘 보여 준다.

그들은 참으로 비 오는 날, 눈보라 휘몰아치는 날을 가리지 않고 고난과 휴식을 모르며 불굴의 투지로 싸웠다.

선렬들의 생활은 승리에 대한 신심과 불굴의 투지로 하여 어떤 역경에서도 항상 혁명적 락천주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그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조국의 해방과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아나갈 미래를 무한히 사랑하였다. 때문에 자신은 비록 일제의 학대와 억압 속에서 자랐지만 후대들에게는 반드시 자유와 행복을 안겨 주려는 일념에 불타고 있었다.

허 형식 동지와 박 길송 동지가 해방된 조국 땅에서 앞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데 대한 포부를 나눈 이야기는 그들이 얼마나 혁명적 락관주의에 충만되여 있었던가를 잘 보여 준다.

이와 같이 그들은 혁명적 락천주의로 충만되여 있었기 때문에 밀림 속의 우둥불'가에서나 인민들 속에서 미래의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노래와 춤으로 쾌활하게 지내며 참다운 삶의 보람을 느꼈다.

선렬들은 일상 생활에서의 혁명적 락천주의로 하여 혁명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편 단심 조국과 인민의 미래를 위하여 싸우고 또 싸웠다.

혁명 선렬들은 가렬한 전투에서, 옥중에서, 놈들의 단두대에서 고결한 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혁명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였다.

그들이 사형장에 강제로 끌려 온 군중들에게 원쑤들과 끝까지 싸울 것을 호소하고 높이 웨친《혁명 승리 만세!》소리는 놈들의 총성을 짓누르고 온 강산에 메아리쳤다.

우리는 이 책에서 혁명 선렬들의 열렬한 애국주의 정신과 그로부터 흘려 나오는 당과 혁명 임무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의 모범을 또한 본받게 된다.

세상에서 공산주의자들처럼 조국 산천과 자기의 인민, 자기의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선렬들은 조국과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고 그를 해치는 민족적 및 계급적 원쑤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한 가장 열렬한 애국자들이였으며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이였다.

조국—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였다.

혁명 선렬들은 조국의 귀중한 모든 것을 무한히 사랑하였으며 특히 선조들이 남긴 애국 애족 사상을 본받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발전시켰다.

그들은 조국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풍부한 자연 부원, 언제 한 번 외래 침략자들에게 굴복해 본 적이 없는 선조들의 불멸의 기상과 혁명적 기백을 자랑하면서 조선 인민된 긍지 드높이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도 항상 조국의 운명을 우려하고 일제의 예속과 압박으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며 미래의 참된 번영을 이룩하려는 높은 리상을 가지고 있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원쑤에 대한 치솟는 복수심으로, 당과 혁명 조직이 주는 임무에 대한 충실성과 철저한 혁명성의 원천으로 되였다.

그들은 조국 강토를 강점하고 부모 형제를 억압 착취하는 일제를 극도로 증오하고 억천만 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는 혁명적 기백으로 싸웠다.

혁명 선렬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원쑤를 무찌르고 조국의 해방을 달성하는 가장 정당한 길이라고 간주하였다. 때문에 그들은 혁명 임무 수행에서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았으며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오직 투쟁 속에서 생의 보람을 느끼며 자기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것을 더 없는 영예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혁명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힘과 정열을 다하였으며 지어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쳤다.

혁명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하여 매'돌을 껴 안고 몸과 마음이 그대로 복수의 불'길이 되여 적과 싸운 신 광순 동지, 앞못보는 몸으로 지팽이에 의지하면서도 놈들의 단두대에서 비통한 최후를 마치면서도 오직 인민들을 반일 투쟁에로 고무하기에 무한히 충실하였던 손 원금 동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국군과의 련합 작전 임무를 끝내 완수한 리 학만 동지의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리 학만 동지는 구국군—고 옥산 부대와의 련합 작전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그 후 대내의 종파 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련합 작전은 일시 중단되고 그들이 유격대를 적대시하게 된 조건에서 그가 고 옥산 부대와의 공작을 계속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였다.

그러나 리 학만 동지는 오직 혁명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려는 일념으로《혁명에 유익한 일이라면 나의 몸이 가루가 될지언정 나는 그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하면서 그 부대와의 재공작을 자진 맡아 나섰으며 끝내 련합 작전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혁명 선렬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김 일성 동지에 대한 충성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그들은 항일 무장 투쟁의 조직자이며 탁월한 수령이신 김 일성 동지에 대한 충성심은 곧 조선 혁명에 대한 충실성으로 된다는 확고 부동한 신념을 가지였다.

선렬들은 그이의 덕성을 무한히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사령관 동지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관철하고야 말았다.

뿐만 아니라 조선 혁명의 참모부—그이가 계신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는 것을 가장 신성하고 고상한 의무로 생각하였다.

리 권해 동지와 같이 그이의 신변에 위험이 닥쳐 오면 서슴없이 자신의 몸으로 그를 막아 나서는 것이 그들의 품성이였다.

그들은 항상 혁명만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렬한 전투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거나 놈들에게 체포되여 사형 당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혁명 과업 수행 정형을 총화하였으며 다 하지 못한 일은 전우들에게 넘겨 주면서까지라도 기어이 관철하고야 마는 철저한 혁명가적 기풍의 소유자들이였다.

우리는 이 책에서 선렬들의 원칙적 단결과 혁명적 동지애,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동한 모범을 배운다.

그들은 모두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로서 자원적으로 유격대에 입대하였던 만큼 동일한 계급적 처지, 공통된 투쟁 목적과 사상으로 하여 굳게 단결되였으며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 결합되여 있었다. 또한 상급은 하급을 친혈육의 정으로 사랑하며 하급은 상급을 아끼고 존경하며 그의 지시에 복종하는 관병일치의 사상으로 하나의 단합된 가정을 이루고 있였다.

부상 당한 자신은 걸어 가면서도 대원들에게는 승마 행군을 시켰으며 전투 시에는 고난과 위험을 자기 몸으로 막아 나선 리 학만 동지, 적들과의 가렬한 전투에서 부상 당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전령병을 위기에서 구원하려고 그를 업고 탄우 속을 뚫고 나오다가 희생된 허 형식 동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선렬들이 대원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였는가를 보여 주는 실례로 된다.

지휘관들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혁명 투사로 육성된 대원들은 지휘관을 존경하고 그의 명령, 지시 수행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으며 그를 위험 속에서 보위하는 것을 고상한 의리로 간주하였다.

선렬들은 동지 호상간에 남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기쁨과 슬픔으로 여기며 전투 공로는 모두 동지에게 미루고 어려운 일은 자신이 맡아 나서면서 생사 고락을 같이 하였다. 그들은 동지를 위하여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전우들을 적의 습격에서 구원하려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허 송학 동지,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오직 동지들의 간호에 밤낮을 이어 모든 정성을 다 바친 리 계순 동지, 옥중에서 동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한 일을 다 책

임져 나선 박 록금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에게서만이 볼 수 있는 품성으로 된다.

혁명 선렬들은 동지를 지극히 사랑하였기 때문에 동지의 사소한 결함에 대하여도 결코 묵과하지 않고 그를 시정하여 주는 원칙적 립장을 견지하였다.

바로 이런 원칙성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동지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면서도 단추 구멍 한 개를 서툴게 손질한 것과 같은 잘못에 대하여서는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제때에 타일러 주었다.

그들은 하부에 대하여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더욱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부대의 참모장이였던 허 형식 동지는 대원들의 피로를 덜어 주기 위하여 몸소 문전초를 서다가 시간을 약간 초과한 데 대하여 대원들 앞에서 자기 비판을 하고 이튿날 다시 처벌 근무를 섰다.

우리는 이 책에서 선렬들의 인민적 사업 작풍과 혁명적 사업 방법, 고상한 인간성과 높은 문화성의 모범을 또한 본받게 된다.

혁명 선렬들은 오직 인민 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며 인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 군중 관점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령관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덕성을 본받아 그것을 생활과 투쟁에서 구현함으로써 인민들과 혼연 일체가 되였다. 선렬들의 이러한 혁명적 관점과 작풍은 그들이 원쑤들과의 간고한 투쟁에서 백전백승한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그들은 자신은 풍찬로숙하고 굶주리면서도 인민들에게는 옷감과 식량을 마련해 주었으며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도 인민들의 생명 재산을 희생적으로 보호하였다.

리 학만 동지는 1937년 6월 얼도린즈 전투시 이미 차지한 성이 적을 치기에 매우 유리하였으나 부근 인민들의 생명 재산에 피해가 미칠 것을 념려하여 그 성에서 나와 오히려 불리한 지형에서 적을 격멸하였다. 이렇듯 그들은 자신이 피 흘려 싸우는 목적이 결국 인민을 위한 것이라는 정확한 관점에서 심중히 행동하였다.

혁명 선렬들은 인민들 속에 들어 가 일'손을 도와 주었으며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자신의 불행과 고통으로 여기고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러한 불행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참다운 길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인민들에게 항상 겸손하고 례절 바르게 대하였으며 지방의 풍습을 존중히 여겼다. 그들은 인민 대중의 요구와 준비 정도에 알맞는 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각종 대중 단체들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 세워 그들을 무장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였다.

선렬들은 《…우선 인민들 속에 깊이 들어 가서 그들과 한 덩어리가 되여야 한다. 그러자면 그 지방 인민들의 언어, 행동, 생활 풍습에 익숙해져야 하며 늙은이들을 존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례절이 밝아야 한다. 그래야 인민들과 친부모 형제처럼 친숙해질 수 있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가르침을 명심하였다.

박 록금 동지는 지방 공작 임무를 맡고 그 지방 인민들의 언어, 례절, 풍습을 충분히 익힌 다음 《되놀이》, 《삼삼기》 등을 조직하여 부녀 사업을 능숙하게 진행하였으며 나중에는 봉건 사상과 풍습에 물젖은 그 마을 로인들까지 반일 투쟁에 인입하였다.

선렬들은 인민적 사업 작풍과 혁명적 사업 방법으로 인민을 위하여 헌신 복무하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극진한 사

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참으로 인민들은 항일 유격대원들을 존경하였으며 친자식과 같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면서 그의 모든 사업을 피로써 도와 나섰다.

그들은 조국의 광복과 자신의 행복을 오직 김 일성 동지께서 령도한 항일 무장 투쟁의 승리에 위탁하였다.

인민들은 일제의 악선전과 《집단 부락》의 설치, 5가작통에 의한 보갑제의 실시 등으로 외부와의 련계를 엄금 당한 조건에서도 항일 투사들의 눈과 귀가 되여 적정을 정찰하고 길 안내를 하였으며 식량과 의약품을 사 보냈으며 전투 시에는 포탄과 식사를 운반하였다.

단 하나 밖에 없는 솥을 이고 와서 《일제놈들과 싸우는 유격대원들에게 소용만 된다면 밥솥이 아니라 자기 몸이라도 내놓겠다》고한 평구 내풍동의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나 신 광순 동지를 아궁 안에 감추어 적들의 불의 습격에서 구원한 대전자 부근 산전막 로인에 대한 이야기 등은 인민들의 유격대에 대한 지지 성원을 웅변으로 말하여 준다.

혁명 선렬들은 원쑤에게는 치솟는 증오로 무자비하게 대하였으나 억압 받고 착취 당하는 인민들에게는 너그럽고 부드럽고 친근하게 대하였다. 혁명 선렬들은 인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진실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참다운 인간성을 소유하였다.

이와 같은 공산주의적인 인간성은 대원들 호상간의 단결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을 항일 유격대의 주위에 결속하는 사업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였다.

당시 민족적 량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항일 유격대를 지지 성원한 것은 물론 항일 무장 투쟁의 목적과 사명이 정당한 데 있었지만 혁명 투사들의 공산주의자다운 인간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선렬들은 풍부한 인간성과 함께 높은 문화성도 소유하였다.

그들은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 가는 임무》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련일 계속되는 전투와 고난 속에서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 학습은 물론 맑스-레닌주의를 부단히 학습하였으며 이와 함께 조국의 력사, 지리, 문화 등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또한 혁명적 출판물에 글을 쓰고 가사를 지어 노래를 불렀으며 연극 대본을 만들어 직접 출연도 하였다. 이리 하여 높은 식견과 풍부한 상식을 소유하였으며 공산주의자다운 고상한 정서를 가지였다.

그 뿐 아니라 혁명가는 자신의 한 몸부터 제대로 거두어야 한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등 생활 문화를 높이는 데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이 밖에도 이 책에서 우리는 혁명 선렬들이 원쑤와의 투쟁에서 보여 준 용감성과 대담성, 자력 갱생의 혁명 사상 그리고 주도 세밀한 지하 공작 방법 등 세련된 공산주의자들에게 고유한 혁명 정신과 고상한 품성을 수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조선 인민이 누리는 무한한 행복—바로 여기

에는 혁명 선렬들의 고결한 혁명 정신과 그들의 붉은 피가 스며 있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혁명 선렬들은 그렇게도 그리던 조국 광복의 날을 보지 못 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그들이 남긴 혁명 정신과 풍모는 오늘 우리들의 심장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으며 더욱 찬란히 꽃 피고 있다.

해방 후 조선 인민이 평화적 건설 시기,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달성한 거대한 성과들과 오늘 근로자들 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공산주의적 미풍들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바로 조선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 하에 항일 무장 투쟁 시기 혁명 선렬들과 그 전우들에 의하여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오늘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이 고귀한 혁명 전통을 더욱 체계적으로 폭 넓고 깊이 있게 연구하며 그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신성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혁명 선렬들처럼 사고하고 행동함으로써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무한히 충직한 당의 전사로, 철저한 혁명성과 고상한 동지애, 높은 인간성과 문화성을 겸비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자신을 부단히 수양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된다.

최 원근

근 로 자 제 22 호 (루계 260 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인 쇄 • 1964년 11월 17일 발행 • 1964년 11월 20일

ㄱ—430685 값 40 전